'2016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리포트

2017-01

청소년들의 일과 삶

–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현진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YMCA 생명 평화·소통의 공동체 전주YMCA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2016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리포트
2017-01

청소년들의 일과 삶

-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현진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YMCA 생명 평화·소통의 공동체 전주YMCA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청소년들의 일과 삶

-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조현진 (시민사업팀 연구원 | heyjayzo@makehope.org)
공동연구 강현주 (시민사업팀 선임연구원 | hyunjukang@makehope.org)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 heewonbaek@makehope.org)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2016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희망제작소 · 전주YMCA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이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목차

연구요약 8

Ⅰ. 서론 14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시작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청소년의 진로의식
3. 연구방법

Ⅱ. 국내 진로교육 실태 검토 24

1. 국내 진로교육 시스템 현황 분석
2. 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Ⅲ.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기초한 청소년 진로의식 분석 38

1. 내일상상프로젝트 소개
2.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진로의식 분석
3. 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의식 및 진로관 분석

Ⅳ.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말하는 청소년들의 일과 삶 80

1.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경험
2. 일과 직업 그리고 삶
3. 청소년들이 말하는 노력의 의미
4.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가져다 준 의미

Ⅴ. 결론 98

참고문헌 104

표 목차

[표 1-1] 설문조사 내용 및 원자료 출처 21
[표 1-2] FGI 참여자의 특성 22
[표 2-1] 전환학년제와 갭이어의 내러티브 탐구 결과 비교 31
[표 3-1] 내일상상프로젝트 단계별 내용과 지향가치 43
[표 3-2] 내일상상프로젝트 팀별 실행 내용 44
[표 3-3] 조사개요 46
[표 3-4] 조사 참여자의 인적 특성 46
[표 3-5]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에 대한 이유 50
[표 3-6]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51
[표 3-7] 학교 진로교육 형태에 따른 지역별 만족도 53
[표 3-8]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별 동의정도 결과 54
[표 3-9] 진로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한 55
[표 3-10] 참여 학부모들의 인적 특성 66
[표 3-11] 직업의식 영역 및 유형 67
[표 3-12] 학부모와 청소년의 직업의식 차이 70
[표 3-13] 학부모의 교육관 74
[표 3-14] 자녀 진로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 76
[표 4-1] 청소년들이 말하는 일과 직업 그리고 꿈 87
[표 5-1] 내일상상프로젝트 실행 구조 100

그림 목차

[그림 2-1]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수 및 설치율(2016.05.) 35
[그림 3-1] 관심사 분석 결과 Ⅰ 47
[그림 3-2] 관심사 분석 결과 Ⅱ 49
[그림 3-3]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또래집단 영역 58
[그림 3-4]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팀 프로젝트 영역 59
[그림 3-5]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지역사회인식 영역 60
[그림 3-6]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공동체의식 영역 61
[그림 3-7]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자아발견 영역 62
[그림 3-8] 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의식 분석결과 68
[그림 3-9] 진로관련 정보 습득 경로 75
[그림 3-10]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에 필요한 지원요구사항 77

연구요약

연구요약

○ 입시 위주로 달려왔던 한국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의 제정, 자유학기제의 시행,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진로탐색 측면에서도 주요한 과제이며, 국가의 미래 전략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라는 풀리지 않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불평등의 심화, 저성장의 장기화와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이 과정에 '꿈과 끼'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미스매치 성격의 실업 현상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인기 직종에 대한 과잉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즉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설계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일과 직업을 가진 이들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환경 속에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소질과 적성을 찾는 일이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종속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인기 직업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편승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진로탐색이고 진로설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인'이 있어야 한다. 직업인에게서야 말로 그의 일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배우는 것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모양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진로교육은 청소년이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다가서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핵심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몇 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진로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험기회의 양적 확대와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도 예정하고 있어 정부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은 인력과 예산 등 전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과 사회현실과 노동과 삶을 연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처 확보, 청소년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인기직종에 대한 단순한 현장체험, 진로교육의 질에 있어서 체험 수에 따른 양적평가 방식 등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문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청소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

가는 직업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초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일을 발견하여 기획하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다종다양한 경험과 '나-팀-멘토-사회'로 이루어지는 단위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진로탐색과 자아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 동안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FGI 등의 연구과정을 포함하였다.

○ 첫 번째 단계인 상상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의식에 관한 기초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인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협업, 자아발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재능탐색워크숍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본인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과 학부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진로탐색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내일찾기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는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과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협업 그리고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의미를 직접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 우리가 확인한 청소년들은 많은 청소년 진로의식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유사하게 진로탐색의 어려움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동의정도가 약하게 나타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으며 흥미 외에 소질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팀 프

로젝트, 또래집단, 자아발견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적 또래집단과 잘 지내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인식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나 자신이 그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아 자신과 지역사회의 가능성과 변화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FGI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는데 특히 위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냉정하게 판단하기도 했고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자신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실현함으로써 내 지역이 바뀌고 비슷한 다른 지역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생하는 일정 변경, 마감 시한 맞추기, 인력 및 장소 섭외, 협업 등의 문제들을 직접 부딪쳐 해결하면서 팀 단위로 일하는 법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 등도 배울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우리는 2016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며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꿈꾸는 지역의 변화와 자신의 가능성을 보다 충실히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이 달라지는 사회구조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토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와 그 곳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곳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나와 나의 욕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을 상상하는 우리의 방법이다.

Ⅰ. 서론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시작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청소년의 진로의식
3. 연구방법

I. 서론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시작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보고 무엇을 길잡이로 잡아 한걸음씩 내딛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정말 그 일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2013~2014)에서 확인되는 재직자의 직업만족도는 46.1%로 나타난다.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5.3%이며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이나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26.7%이다. 임금과 복리후생, 자기계발 가능성, 사회적 평판과 소명의식 등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이유를 물으면서 직무만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진로 · 직업을 고민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요소들이 위 두 영역에서 무 자르듯 뚜렷하게 분류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왜 선택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만족할 것인가? 는 매우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 답은 아주 복잡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원할까? 좋은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원할까?

한 방송사에서 방영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형언할 수 없이 힘들게 쌓은 스펙으로 뚫고 들어간 그 좋은 대기업을 다양한 이유들로 퇴사하는 요즘 젊은 것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직 안에서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혹은 자부심과 고임금에도 행복하지 않아서 또는 조직 안에서 개인의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과 같은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들은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선택하든 다양한 선택의 이유들과 무관하게 직업을 바꾸는 배

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선택은 쉽지 않으며 만족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의 청소년들과 이야기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진로교육법 제1조).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진로교육법 제2조1).

과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진로심리검사를 받았지만 과연 이것이 내 적성인가 의문을 가지는 것에 그쳤고, 진로상담은 곧 진학상담이었으며 진로정보는 대학의 전공과 성적에 따른 배치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 진로상담교사가 진학 외에 진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횟수 이상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체험은 그때그때의 인기 직업으로 한정되고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바리스타 체험을 하며 기술적으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은 경험하지만 카페 산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바리스타의 삶에 대해서도 배우지 못한다. 직업 뒤에 어떤 삶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직업을 얻고 나서야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 내 삶과 내 일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민이 진로교육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앞서 던졌던 질문, 왜 선택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만족할 것인가에서 우리는 특정한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무엇을' 하는 일인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고 다시 던지며 학교라는 사회 또는 청소년들의 사회에서 좀 덜 무거운 마음으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

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청소년의 진로의식

본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해 진로교육의 인프라가 열악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일회성 진로 체험이나 강연의 형태가 아닌 4~5개월에 걸친 비교적 장기적인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형태에 초점을 둔 것은 경험학습 즉 '행함에 의한 배움'(learning by doing)의 이론을 본 프로젝트의 구성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다.

경험학습의 이론을 최초로 모형화 한 콜브(Kolb, 1984; 김지자외, 2001 재인용)는 경험학습을 학습자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적인 관찰과 반성을 통하여 이들 경험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화, 즉 행동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습자의 행동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학습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경험학습에 있어서 학습의 과정은 순환적으로 주기를 이루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상정되고 있는 이 학습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체험에 대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이들 경험에 대한 반성(reflection) 즉 반성적인 관찰(reflective observation)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경험학습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멘토와 결합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단계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이중의 실행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의 실행단계에서 멘토의 가이드와 함께 지역을 탐색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을 얻고, 2단계의 실행단계에서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보완하고 실행하는 동안 이전의 배움을 활용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며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관찰과

반성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체험교육은 형식적이고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내용적으로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경기도 내 중학교와 일반계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의 문제점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42%)과 일회성 · 행사성 프로그램(32%), 내용부실로 인한 형식적 체험학습 전락(17%)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1]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일회성 진로체험 등에서 얻기 힘든 직업인의 삶,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으로 일과 진로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보다 깊고 넓게 확장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① 청소년 주도적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과 ② 지역사회 일감 찾기가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2] 단계적 실행 경험이 청소년들이 일과 진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변화시키며 기존과 다른 노동에 대한 학습의 기회로서 작용했는지 확인하며, 지역사회 일감 찾기가 지역이 성장 후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진 꿈을 펼치고 더불어 살며 함께 지속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의 저변이 확장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 실태와 지역사회 진로교육 및 체험 인프라 현황에 대해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특징과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 프로젝트에 기초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IV장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FGI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말하는 일과 삶, 노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V장에서는 정책적 제언과 함께 결론을 맺을 것이다.

---

1) 김위정, “직업 체험보다 직업인의 삶 느끼는 진로교육을”, 한국교육신문, 2016.10.01.
2)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특징 및 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I-1. 참고

3. 연구방법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각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1)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관심 및 진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첫 단계이자 대규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 된 상상학교에서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상상학교 참여 청소년 및 그 외 청소년들이 단계별로 실행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 앞서 사전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및 기타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배치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문항의 설문을 시행하여 사전-사후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각 설문 문항의 구성과 원자료 출처 및 진행시기는 [표 1-1]과 같다.

2) FGI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경험학습에 근거한 청소년 주도적 실행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과정이 종료 된 후 각 과정 참여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시행하였다. 본 과정은 설문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얻게 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기서 얻은 개개인의 반응을 통합하여 본 프로젝트가 설정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관찰하며 분석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 스스로 생각하는 진로란 무엇인지, 자신의 꿈과 삶을 찾는 진로탐색을 본 프로젝트 이외에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희망하고 그러한 삶

을 위한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고자 하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지역 사회 내에서 진행된 본 프로젝트의 경험이 지역사회 인식에 변화를 주었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와 대안적 방향을 논하는 III장과 IV장에 걸쳐 제시될 것이다.

[표 1-1] 설문조사 내용 및 원자료 출처

설문	진행시기	성격/유형/분류	원자료 출처*
청소년들의 관심 및 진로에 대한 기초조사	상상학교 종료 후	- 관심 사 - 진로 의식 -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장애 및 요구도*	- 한국청소년진로직업지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진로의식 설문조사	재능탐색 워크숍 후	- 또래 애착* - 지역사회 인식* - YPI의 active citizenship - 공동체의식** - 진로정체감* - 진로개발역량***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 최문형 · 정문기(2015)** - 진로직업지표***
직업의식 설문조사	재능탐색 워크숍 후	- 직업선택* - 직업과 성 역할* - 직업가치* - 직업존엄*	- 곽병선 등(2013)*

주) */**/***은 해당 유형 문항의 원자료 출처를 표기한 것이다.

[표 1-2] FGI 참여자의 특성

이름	성별	학교/학년	거주지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동기
A	여	특성화 고1	전주	재밌을 것 같아서
B	여	특성화 고1	무주	해보고 싶어서
C	남	특성화 고1	전주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D	남	특성화 고1	전주	일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E	남	특성화 고2	전주	경험(지식)을 쌓고 싶어서
F	남	중3	순창	추천
G	남	중3	순창	추천
H	남	중3	순창	추천
I	남	중3	순창	추천
J	남	일반계 고2	순창	관심 있는 내용이 있어서
K	남	일반계 고2	순창	공부하는 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L	남	일반계 고2	순창	추천
M	남	일반계 고2	순창	친구 (3단계 참여)
N	여	중1	완주	재밌을 것 같아서
O	여	일반계 고2	완주	추천
P	남	중1	완주	재밌을 것 같아서
Q	남	중2	완주	재밌을 것 같아서
R	남	중1	완주	재밌을 것 같아서
S	남	중1	완주	재밌을 것 같아서

주: 이름은 알파벳으로 표기함

Ⅱ. 국내 진로교육 실태 검토

1. 국내 진로교육 시스템 현황 분석
2. 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II. 국내 진로교육 실태 검토

1. 국내 진로교육 시스템 현황 분석

1) 진로교육법의 도입과 진로교육의 확대

지난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의 도입에는 아낌없는 부모의 교육열, OECD 학업성취도(PISA) 상위권의 성적, 8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88만원 세대, 3포세대 나아가 N포세대가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해소되지 않는 노동문제라는 이면이 도사리고 있다. 청소년들은 현재를 저당 잡힌 체 미래에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는 2020년까지 500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고, 이에 2016년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 세계 7세 어린이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WEF, 2016). 입시와 스펙, 대기업 취업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던 과거의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으로 변화하고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과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등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교육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은 고교 다양화 및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에 따라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학교는 교과교육 등 입시(진학)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여 진로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외, 2010). 이 당시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를 시행하며 기존에 선택과목이었던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수업이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담당함에 따라 발생한 질 저하

및 타 교과 수업 실시 등의 파행적 진행을 개선하였다. 또한 이들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사하여 양질의 진로정보와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정윤경, 2016).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은 중학교 단계 자유학기제 도입의 성과 확산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신장, 학교급별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일반 교과목과 연계한 진로교육으로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갖추는 것을 도모하고 중학교에서는 진로탐색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집중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설계를 위해 대학 · 학과 관련 진로체험을 실시한다. 대학 단위에서도 취 · 창업과 연계하는 등 진로교육을 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기를 권장한다(교육부, 2016).

국가적으로 이와 같이 진로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 개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고 활용하려는 거시적 측면의 이유도 있다. 특히 인적자원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한국에서 진로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진미석외, 2012). 그러나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작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이 단편적인 체험의 양적 확대, 천편일률적인 체험학습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 소수의 진로전담교사에 대한 업무 과중,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 적합한 진로교육 기회제공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현재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진로교육제도로서의 자유학기제와 직업체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내용적 · 형태적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자유학기제의 시행

자유학기제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에 있었다. 초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3년 가운데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진로교육을 채우고 지

필고사 평가를 최소화하는 자유학기제가 국내 교육현실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도로 평가했다.[3]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16년에는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계 일각이나 청소년,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과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둘로 나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로교육의 중점 목표로서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동반되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기초가 될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지필평가가 최소화되는 등 체험과 수행평가 중심으로 학습량이 감소해 상위학교 진학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며 충분한 진로탐색의 효과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4] 물론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기초로 지속적인 시행 방향과 수정 내용을 가늠하고 있다. 하지만 신철균외(2015)에 의하면 현재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들은 교사 측면으로만 실태를 파악한다거나(김은정, 2013; 홍후조외, 2013),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는 등(최상덕외, 2014) '연구대상'에 있어 제한점을 보인다. 또한 '연구영역'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 특정 영역 중심으로만 자유학기를 분석(정영근외, 2014; 지은림외, 2014; 황규호외, 2013 등)하는 등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 연구에 관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자유학기제의 시행이 참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초가 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학기 중 주말과 평일, 방학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일정으로 운영되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의 진로교육활동과 교과활동에 내일상상프로젝트라는 별도의 진로체험활동을 추가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참여 당시 자유학기제 중인 이들은 없었다. 자유

3) 박수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선행학습 규제...교과부 '박근혜 공약' 검토 착수", 한겨레, 2012.12.25.

4) 최민지, "자유학기제, 중학교 96%가 1학년 2학기에 시행...효과↓", 머니투데이, 2015.04.20.

학기제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수였고,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일부 있어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 자체가 어쩌면 참여자들에겐 자유학기제와 유사하게 진로체험과 탐색, 설계의 기초를 닦아주는 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참여자들의 진로활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전 학생주도적이며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 및 해외의 유사 과정들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히 확인해볼 것이다.

(1)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의 진로탐색

김달효(2015)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진로에 대한 꿈과 끼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알아볼 수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수업 능력이 향상되고 수업 방식이 직업체험이나 프로젝트를 그룹별로 완성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성의껏 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여지영외(2016)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진로체험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 측의 진로체험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으며 체험활동이 일부 즐겁고 재미있긴 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흥미가 없는 곳으로 체험을 가서 오히려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승범외(2016)는 자유학기제 참여에 따른 진로인식에 관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진로인식은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자유학기제 시행 전 집단과 시행 후 집단으로 각각 조사하여 자유학기제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행복과 인성 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유학기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다양한 방법의 적용 등이 이루어지다면 진로인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하고 있

다.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 이외에도 지필시험 지양과 학교교육 전반에서 토론과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의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운영하여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나라외, 2014). 그러나 자유학기제 시행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계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지적이다. 진로교육 인프라에서 다루겠지만 진로체험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체험을 제공하는 곳 자체가 일부 영역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완전히 매칭되는 곳을 선택해서 체험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한상근(2009)에 의하면 프로그램 만족도와 직업 이해도, 진로교육 효과 등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압도하였다. 여러 종류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다.[5]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체험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 자체가 간헐적이고 지엽적이지 않게 보다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해외의 유사사례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해외의 사례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Efter Skole), 스웨덴의 프라오(Prao), 영국의 갭이어(Gap year) 등이 있다.

5) 직업체험, 현장견학, 직업인 초청 설명회, 시청각 자료 활용 프로그램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표 2-1] 전환학년제와 갭이어의 내러티브 탐구 결과 비교

구분	인본주의 교육철학	체험중심 진로교육 측면에서의 사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영국 갭이어
인본주의 교육철학의 전제	개인에 대한 이해	학습자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	
	학습자의 자유와 책임	학습자의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발현해야 함	
인본주의 교육철학의 요소	학습자의 자유와 책임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	
	촉진자 및 격려자로서의 교사	- 교사는 체험중심활동을 개발, 전달, 운영함 - 교사는 학습자의 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 등의 촉진 및 격려 활동을 함	- 촉진자 및 격려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일부 나타나나 영향력이 적음 - 촉진자 및 격려자가 있으나 갭이어에 있어 참고의 대상임
	경험을 통한 학습	직접적 체험과 간접적 체험 모두 포함되어 있음	직접적 체험 중심
	타인과의 협동	학습자 간의 프로젝트 성격의 협동학습이 이루어짐	참여자 간의 협동보다, 체험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 맺기가 일어남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질적 평가	학습자는 자신의 체험 활동에 대해 질적으로 평가함	
	주관적 의미 발견 및 성찰	학습자는 자신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주관적으로 의미를 발견하고 성찰함	
	전인격적 성장	학습자는 체험주심의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전인격적 성장을 하게 됨	

출처: 정진철·김나라·최지원(2013)

[표 2-1]은 영국의 갭이어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인본주의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비교한 것이다. 두 사례 모두 경험을 통한 학습을 중시하나 갭이어는 직접적 체험 중심인 반면 전환학년제는 간접적 체험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타인과의 협동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전환학년제는 간접체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격의 협동학습, 토론 등의 방법이 일

어나고 갭이어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개인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환학년제가 교육체제 내에 포함된 제도인 반면, 갭이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참여하는 활동으로 교육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정진철외, 2013).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기 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자아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다닐 수 있는 형태이다. 학교의 궁극적 목적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학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개인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삶에 여유를 갖는 범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웨덴의 프라오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8학년과 9학년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2주간의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 회사와 직업을 체험하고 느끼며 직업세계에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운영은 진로지도상담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업에 방문할 때는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소개하고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팁을 알려준다. 그러나 많은 감독관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르고 학교와 프라오의 연계에 대해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도 무엇보다 프라오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회사가 지원에 대해 어떠한 기대사항을 갖고 있는가, 회사의 규칙 및 규정은 무엇인가, 회사 경영주는 어떤 일을 하는가 등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직업을 위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적성과 맞는가에 대한 내용을 체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점이다(임지연, 2017[6]). 본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프라오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직면할 수 있는

6) 임지연, "스웨덴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학교-지역-기업의 협업", 주간교육신문, 2017.01.09.

기술을 개발하며 체험 중 일어나는 과정 동안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학생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CEDEFOP, 2010; 김나라외, 2014 재인용).

위 프로그램들은 다소 차이를 갖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자유와 자율성으로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성과 잠재성을 발견하고 이것이 자아발견과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적한다는 바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과의 상호작용, 자신과 외부와의 상호작용 등을 하며 자신을 알고 삶을 설계해 나가는 기초적인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활동이 자유학기제 이외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고자 하는 여러 현장에서 그곳의 상황과 맥락, 참여자들의 특성에 적합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 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자유학기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가장 주요했던 정책 중 하나가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학업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기를 고려하여 많은 학교들에게 비슷한 시기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며 체험처를 확보하는데 담당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세우던 당시부터 체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방안을 제시했었다. 장현진(2014)에 따르면 중앙단위는 중앙단위 기관과의 MOU체결로 중앙-광역-지역단위로 이어지는 체험 인프라 확보 토대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은 시도 안팎의 인프라와 학교 간의 매칭 시스템 구축 및 도시 인프라와의 실질적 연계 방안 즉 도시 학교 인프라를 농산어촌 학교에 개방 및 공유하거나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농산어촌 지역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별로 지역인사,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후원단을 운영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의 수요에 부응하는 학교별 체험 인프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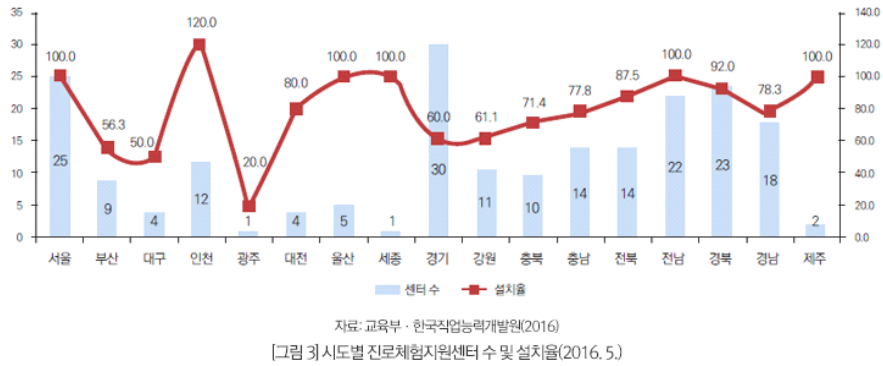
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단위 중심으로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로체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은 제시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추진되는 하향식 정책추진으로 중앙의 목소리가 지역 및 단위학교의 말단에까지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역사회와 제반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다보니 급작스런 예산 및 인력투입이 수반되었었다. 정책 이외에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여 현장에서의 추진 및 실천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미흡했다.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와 내실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교육 5개년 계획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공공기관의 체험처 제공 의무화, 대학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진로체험처 제공의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처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진로체험처 제공을 위해 활동단계별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진로체험기관 멘토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부여하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진로체험의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윤경, 2016). 또한 교육부(2016)에 따르면 지능정보시대에 맞춰 신직업세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우주 등의 전문분야 체험, 글로벌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지역특화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를 제공하는 등 체험의 기회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진로체험을 위한 지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특히 정부 주도의 정책방식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참여 외에 단위학교 주변 즉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상공인 일터 등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2016년 5월 기준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수 및 설치율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중소도시 등에 진로체험지원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2-1]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수 및 설치율(2016.05.)



자료: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그림 3]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수 및 설치율(2016. 5.)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김기헌(2016) 재인용

이러한 문제 외에도 체험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이 한정되다 보니 청소년들의 관심에 맞춰 참여를 진행하기보다 제비뽑기 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7]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 존재하는 직업인들과의 연계를 통한 탐색과 경험의 과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진로체험들도 명확한 커리큘럼이 없어 직업정보, 진로관련 내용 제공에 부족함이 현저히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는 각 지역에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진로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고 청소년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역사회연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주축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 적도 있다. 지역과 코디네이터기관, 학교가 결합하는 형태였다. 김현철 외(2012)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주는 것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변화가 나타났으며, 청소년기관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커이자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성은모외, 2013 재인

7) 유준호, "이런 황당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2016.07.01.

용).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세세한 특성을 활용하고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에서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잘 안되는 이유는 학교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협조가 부족하다는 지역 담당자들의 응답이 많았다고 한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2016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학교의 지역 이해부족이 여전히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임지연, 2017). 연구진이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하게 된 학교 역시 이미 기존의 지역파트너가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였다. 그래서 1단계 상상학교를 진행하고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모집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학교가 아닌 지역파트너를 통해 참여하게 된 경우로 학교는 이들의 활동에 상대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참여 자체를 학교에서 내규 상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학교 자체의 공식적인 협조를 얻지 않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한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역파트너 기관의 지속적인 연락과 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참여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학교 밖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나 지역 내 청소년 활동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등과 학교가 충분한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연계는 물론 어떤 특정 주체만의 몫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업들, 소상공인들, 지역사회 내 어른들의 공통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이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에 함께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대기업 체험을 가서 구경을 하고 소개를 받고 견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얻는 것과는 질적인 차원이 다르다. 체험처의 규모와 무관하게 얼마나 직업인의 일과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가가 청소년들의 경험을 통한 학습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8] 비록 작은 일터라도 청소년들이 주변

에서 직접 만나도 그들의 노동과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작은 차원에서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보태고 지역사회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성은모외(2013)의 연구는 진로체험기관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교육적 열의와 마인드가 진로처헴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경험을 좌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들은 진로체험기관 선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구축과 진로직업체험추진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험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III.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기초한 청소년 진로의식 분석

1. 내일상상프로젝트 소개
2.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진로의식 분석
3. 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의식 및
   진로관 분석

III.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기초한 청소년 진로의식 분석

1. 내일상상프로젝트 소개

1) 내일상상프로젝트 기획 배경

미래학자들은 20년 후 현존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9]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는 진로교육 대부분은 현재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에 이들을 편입시키는 형태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학교 밖 영역에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직업체험센터 등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체험에 그치며 직업을 넘어서 직업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다. 인간의 삶 안에서 일의 의미를 들여다 볼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체 표면적인 요인들로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요인은 나이가 들수록 주관적인 요소보다 객관적인 요소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3~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10]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적성 · 흥미(33.2%)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수입(27.0%), 안정성(22.8%)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직업 선택의 이유로 적성 · 흥미를 선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의 경우에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내에서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9) Frey, Carl Benedikt and Michael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University.

10)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본 통계는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을 기본으로 작성하였고 작성통계별 성격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조사 대상이 달라 지표별 청소년의 대상 연령에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들의 이러한 진로 선택 경향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으로의 진학 및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청년과 인재의 유출 문제를 낳기도 한다. 우수한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 등 청년의 지역사회 이탈 현상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1] 이에 국가 차원에서도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개별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 내 청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등 보다 상위 정책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협소해지고 지역사회도 청년층 유출로 인한 우려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 진로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합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도하였다.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과정을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멘토들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청소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로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도적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탐색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지역사회 역시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조력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이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지역사

11) 강동우(2016)의 시군구 기초지자체 수준의 지역 간 인구이동 흐름 연구 결과, 고졸 이하 지역 이동자 중 15~3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동일 연령층이 71.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5~39세 연령층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동성향을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시도를 기준으로 전문대졸 이상 학력층, 특히 15~39세 연령층은 강한 수도권 지향성을 보였으며, 그 정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 계층에서 두드러지는 이러한 수도권 지향성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층의 지역노동시장 여건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청년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청년과 여러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이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이들과 결합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의 청소년들보다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에게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그 지역 안에서 남다른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알아가며 그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자신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구성원에게는 지역사회의 참여자로서의 장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에는 청소년 · 청년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 내일상상프로젝트 세부 구성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순창군, 완주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의 중소도시와 도농복합지역 및 소규모 군단위에서 진행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이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도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각 과정별로 독립적인 콘텐츠로 진행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 연계 된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상상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와 지역을 기반으로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우는 대중 강연과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과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휴먼라이브러리(사람책)를 진행하였다.[12] 휴먼라이브러리는 사전에 청소년들에게 사람책의 개요와 목차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분야 사람책을 직접 선택하여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형

12) 휴먼라이브러리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가 매체가 되는 즉 사람책과 독자가 상호관계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상상학교에서 진행된 사람책은 희망제작소에서 제작한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안내서(희망제작소, 2014)”를 참고하여 현장의 특성과 청소년 진로탐색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소 변형하여 이루어졌다.

태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과정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상상학교 참여 청소년 외에도 지역 내에서 별도의 모집을 시행하여 내일상상프로젝트 후속 단계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로 각 지역 당 두 개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다.

먼저 2단계인 재능탐색워크숍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들로부터 직접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보며 지역의 이슈를 발견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는 2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의 조력 없이 청소년들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기획을 진행하여 주제와 관련된 조사 및 탐방을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구성되었다. 다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 등 큰 틀의 가이드 정도로 슈퍼바이저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표 3-1] 내일상상프로젝트 단계별 내용과 지향가치

1단계	2단계	3단계
상상학교	재능탐색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	내용	▷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워주는 교육	다양한 기술을 배우며 욕구와 재능을 발견하여 지역의 일감을 수행	지역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발견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연결한 팀 프로젝트
협업 공동체의식함양 주도성제고		
지	향	가 치
지역사회인식확대 자아발견		
▲ 기초설문조사	▲ 설문조사 (학부모 설문조사)	▲ FGI

내일상상프로젝트 구성 단계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본 프로젝트 과정이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및 FGI 등의 시행 순서도 각 단계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맞춰 표시하였다. [표 3-2]는 내일상상프로젝트 2단계 및 3단계에서 결성된 프로젝트 팀과 프로젝트 실행 프로세스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표 3-2] 내일상상프로젝트 팀별 실행 내용

단계	재능탐색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결성 팀	우리동네문화기획단(로컬요리사/밴드) 삼삼공작소 삼인행, 지금만나러갑니다 밥! 생명의고리잇기		동네방네요리조리 시간을잡는소녀들 지금만나러갑니다 ver. 2 밥! 생명의고리잇기 ver. 2
진행 내용	오리엔테이션 ↓ 지역탐색 with 지역사회멘토 ↓ 프로젝트 팀빌딩 ↓ 기획 워크숍 ↓ 프로젝트 진행 with 지역사회멘토 ↓ 프로젝트 중간점검 ↓ 결과공유회	▷	기획 워크숍 ↓ 관련 주제 탐방 ↓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중간점검 ↓ 결과공유회 (지역포럼)
결과물	로컬푸드레시피/지역페스티벌참여 컨테이너하우스 제작 삼인행 멘토 인터뷰집 제작 전주사회적경제한마당장터 참여/판매		푸드카트제작/파머스마켓 진행 시간을잡는소녀들 로컬매거진 제작 순창까지찾아온과학캠프 개최 청소년사회적경제 탐방

주) 팀별 실행 프로젝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상상프로젝트 과정을 스케치한 소책자 「내일을 그리다, 2016」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진로의식 분석

1) 상상학교 참여자들의 관심 및 진로 기초설문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상상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관심 및 진로에 대한 기초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상상학교가 진행된 완주와 전주의 청소년 8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은 진로직업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관심영역과 진로만족도영역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야인 관심영역은 연구진이 설정하고 있던 청소년에 대한 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헌, 언론자료에 대한 검토 및 연구진의 기본적 가설에 기초하여 '관심'과 '진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3] 두 번째 진로교육경험 및 진로만족도 영역은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해 상상학교 참여 청소년들의 경험유무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진로직업지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항목과 진로교육관련 장애 및 요구도에 관한 항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조사개요 및 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조사 참여자 중 단위무응답자는 전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항목무응답자는 미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14] 조사개요 및 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

13) 연구진의 기본적 가설은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에 관한 조사에서 건물주가 1위로 선택되는 현 세태를 고려하였다.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삶을 보며 건물주와 공무원을 장래희망으로 꼽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력일 것이라고 보았고, 청소년들의 그리는 삶도 이와 관련한 답변이 높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14) 설문조사에서 무응답은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단위무응답은 여러 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단위 전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항목무응답은 조사단위에는 응답을 하였으나 그 조사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응답항목들 중에서 몇 개의 항목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이내성, 2007).

[표 3-3] 조사개요

조사대상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거주 중1~고3 청소년 817명
조사지역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순창군/익산시/군산시/김제시/남원시
조사방법	상상학교 현장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6.06.10. ~ 2016.06.29.

[표 3-4] 조사 참여자의 인적 특성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433	56.02
	여자	340	43.98
연령 (재학 학년)	중1	65	8.00
	중2	55	6.77
	중3	643	79.19
	고1	26	3.20
	고2	22	2.71
	고3	1	0.12
거주지역	전주시	578	76.56
	완주군	142	18,81
	순창군	30	3.97
	익산시	2	0.26
	군산시	1	0.13
	김제시	1	0.13
	남원시	1	0.13

주: 총 817명의 설문 참여자 중 각 항목에 대한 결측값(항목무응답)이 존재하여 특성별로 표본수가 상이함. 이후 분석결과는 항목무응답자를 포함하였음을 밝힘.

(2) 기초설문조사 분석 결과

본 설문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관심사,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꿈과 같은 청소년들의 현재 관심사를 물어보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진로 결정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 진로 준비 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는 진로교육영역으로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과목 등의 경험 여부와 만족도,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와 진로교육을 통해 얻게 된 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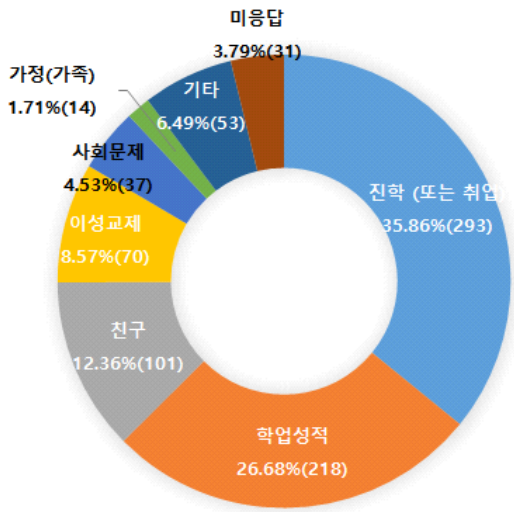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관심사 분석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확인하고자 할 때 연구진이 고민한 것은 이들에게 꿈을 묻고, 인생의 가치를 물어봐도 될 것인가 였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안정적인 삶 자체가 이루기 힘든 꿈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장래희망마저 건물주, 공무원이라며 미래세대가 큰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말들이 사회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이란 이름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들으며 자신이 살아갈 삶을 그려보는 일이었기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삶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인생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관심사 분석 결과 I

Q.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설문이 진행된 2016년 6월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진학(또는 취업)이 35.86%(293명)로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이 26.68%(218명), 친구 12.36%(10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분석을 한 결과 우선순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1 청소년들은 학업성적과 친구, 진학 순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중2 청소년들은 친구-진학-학업성적 순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3 청소년들은 진학을 선택한 비율이 약 40%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약 30%, 친구나 이성교제가 각각 10% 정도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년들의 공부와 취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청소년 통계에서 15~24세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39.8%), 외모(19.7%), 가정환경(8.9%) 등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공부'를 선택한 응답자가 38.5%로 나타났고, '직업'이 24.1%로 그 뒤를 이었다. 2014년에도 '공부(35.3%)', '직업(25.6%)', '외모 · 건강(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공부만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은 장기적인 청년 실업 등 풀리지 않는 일자리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침체가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에도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5] 13~24세 청소년 대상의 직업 선택 요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2015년 동안 '안정성(20.3%→22.8%)'을 선택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성 · 장래성(6.7%→5.4%)', '적성 · 흥미(33.9%→33.2%)' 등을 선택한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16]

진로(또는 취업)와 학업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은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그리고 그 절반 정도의 비율로 가족을 선택했다. [그림 3-2]의 기타/미응답에 포함된 답변에는 친구/자유와 평등/명예/공동체와 같은 가치 등이 포함되어있다.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 요인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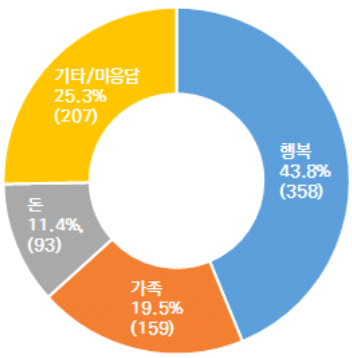
15) "공무원·건물주가 '꿈'… 청소년들의 현주소", JTBC, 2016.02.29.
16) 2011, 2013, 2015 사회조사(통계청)

서 경제적 안정을 대변하는 '돈'을 선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돈'을 선택한 이들은 11.4%(93명)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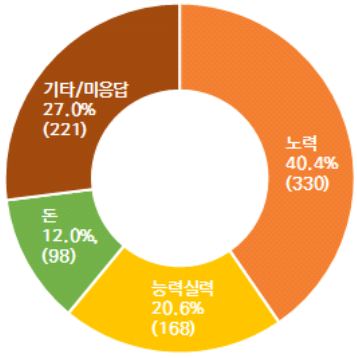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인생의 성공요인으로 선택한 것은 '노력(40.4%)', '능력 · 실력(20.6%)', '돈(12.0%)' 순으로 나타났다.[17]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노오력의 배신의 시대[18]에도 청소년들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택한 것이다. 가치와 성공요인 문항에 대해 교차분석을 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돈'을 선택한 청소년은 인생의 성공요인으로도 '돈(34.8%)'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이나 '가족'을 선택한 청소년은 40% 이상의 비율로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 관심사 분석 결과 II

Q.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Q. 인생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17) 기타/미응답에는 대인관계(83명, 10.2%), 운(38명, 4.7%), 인맥(15명, 1.8%), 성격(13명, 1.6%), 가정배경(10명, 1.2%), 학벌(9명, 1.1%) 등이 포함된다.

18) 「노오력의 배신」은 헬조선과 노오력의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대변하고자한 책이며, '노오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실업과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체 그저 '노력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성 사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용어임. (참고) "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력이 필요해", 경향신문, 2015.09.04.

2016년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염유식외, 2016)에 따르면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화목한 가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보다는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희망제작소의 2016 희망지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답변이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과 '개인의 노력' 두 문항이었다. 이러한 선택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만15~19세의 청소년들이 만20~29세의 청년세대에 비해 '개인의 노력'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32.9% vs 24.7%).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을 선택한 비율은 10대, 20대, 30대로 갈수록 45.2%, 50.7%, 50.6% 등으로 높아진다.

[표 3-5]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에 대한 이유

Q. 2016년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은 1위 공무원, 2위 대기업 회사원, 3위 전문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왜 이런 직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N	%
1위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413	50.6
2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254	31.1
3위	사회(가족, 친구 등)가 인정해주어서	33	4.0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위 설문은 청소년들에게 왜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전문직 등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예측 가능한 답변이라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 스스로 안정적이며 어느 정도 경제력이 담보되는 직업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즉 위에서 확인된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노력과 같은 성공요인 등이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교 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청소년들이 진로와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달라졌고 특히 이들이 성장할수록 보

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요소들로 지향가치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② 진로의식 분석

청소년들이 진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먼저 청소년들 다수가 진로를 '장래희망(55.0%)'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23.3%)', '진학(11.6%)'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Q. '진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답변	N	%
1위	장래희망	449	55.0
2위	직업	190	23.3
3위	고등학교 · 대학교 진학	95	11.6

Q. 진로를 이야기하거나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

	답변	N	%
1위	내 의견이 중요하다	689	84.3
2위	내 주변 어른(가족, 선생님 등)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62	7.6
3위	내 주변과 나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적, 환경 등 중요)	29	3.5

Q.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답변	N	%
1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387	47.4
2위	시간이 부족하다	112	13.7
3위	일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분위기가 신경 쓰인다	76	9.3

Q. 진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답변	N	%
1위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거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193	23.6
2위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자료(책, 인터넷 등)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192	23.5
3위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을 받아보았거나 받고 싶다	153	18.7
4위	학교에서 시키는대로 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130	15.9
5위	관심이 없다	100	12.2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84.3%)'이라고 답하였으며 부모님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의 의견(7.6%)'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는 청소년들이 정작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47.4%)'는 점을 꼽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탐색하며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은 진로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23.6%)'를 나누거나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자료 획득(23.5%)'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을 알기 위한 과정으로 '흥미나 성격을 알 수 있는 상담(18.7%)' 등을 받거나 받아보고 싶어 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2012년 진행한 진로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진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나 자신(43.0%)'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진로결정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38.3%)'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③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분석

이번 장에서 검토하게 될 분석 결과는 전주시와 완주군 · 순창군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경험과 만족도로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표 3-7] 학교 진로교육 형태에 따른 지역별 만족도 결과

(단위: 점/5점)

문항	전주시	완주군 · 순창군
'진로와 직업' 수업	3.55	3.82
현장학습 및 견학	3.55	3.75
진로상담	3.51	3.78
진로관련 검사	3.57	3.82
인터넷 진로교육	3.33	3.83
유명인사 또는 선배 초청강의	3.57	3.96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3.52	3.82
방과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3.49	3.81

주: 지역별 평균점수에 대한 t-검정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현장학습 및 견학문항은 10% 수준에서 유의)

위 표에 제시된 진로교육 형태에 따른 지역별 만족도 결과 중 문항에 해당하는 진로교육 형태는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진로교육 활동으로서 학교에서 해당 경험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 항목에 걸쳐 전주시의 청소년들보다 완주군 · 순창군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방과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으로 완주군 · 순창군 청소년들은 만족함에 가까우나 전주시 청소년들은 보통 정도의 수준이다. 가장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문항은 '유명인사 또는 선배 초청강의'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미래에 대해 특정 직업인 또는 유사한 길을 걸은 선배로부터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며 이러한 시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진로교육 내용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바는 [표 3-8]에 나타나있다. 이 역시 지역 간 차이를 보이며 완주군 · 순창군 청소년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진로교육 선생님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고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 시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다소 낮아 좀 더 진로교육을 위한 시간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8]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별 동의정도 결과

(단위: 점/5점)

문항	전주시	완주군 · 순창군
진로교육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15	3.57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28	3.71
진로교육 선생님의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57	3.95
진로체험의 다양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29	3.61
진로교육 관련 시설과 기자재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22	3.55
진로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34	3.68

주: 지역별 평균점수에 대한 t-검정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진로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도 완주군 · 순창군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에서 청소년들은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얻었으며,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군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거나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직업,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업이 어떠한 일인지 알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갖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9] 진로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 결과

(단위: 점/5점)

문항	전주시	완주군 · 순창군
내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3.55	3.86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3.62	3.91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71	4.07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3.68	4.02
다양한 직업군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	3.49	3.82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50	3.82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42	3.80

주: 지역별 평균점수에 대한 t-검정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3) 소결

상상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청소년 주도적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들의 관심 및 진로에 생각을 기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진학(또는 취업)과 학업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행복과 가족을 주로 선택하였으며, 인생의 성공요인으로는 노력과 능력 · 실력을 선택하여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청소년들이 중요시 하는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보다 경제적 측면으로 변화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19]

청소년들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정작 자신에 대해 잘 몰라서 진로 준비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진로준

19) 「청소년 통계」 각 연도 자료 등

비를 위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희망하는 진로 ·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활동 등을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청소년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진로교육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진로교육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만족도, 진로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한 만족도 모두 중소도시인 전주시의 청소년들보다 농촌지역인 완주 · 순창 청소년들에게서 높이 나타났다.[20]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자신이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고 말 한 것은 자아탐색과 욕구발견이 진로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은 쫓기듯 진행되는 교과학업과정, 진학준비, 취업걱정 등으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볼 잠깐의 여유조차 찾기 힘들다. 청소년들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토론과 경험학습 중심으로 만족을 얻고 있기도 하지만 학업성적 하락 우려와 함께 단순한 체험의 반복 등으로 문제점을 낳고도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과정이었다. 체험, 견학 보다는 직업인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형태의 진로교육이 더 늘어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기를 원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의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에게는 몇 개월 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시간 동안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일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 뒤에 숨겨진 직업인의 실제 삶을 느끼면서 진로 · 직업

20)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상반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낮아 상대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농어촌 학교가 그간 겪어온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학교 복원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체험학습, 생태학습, 탐구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려 노력해왔고 이에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승보, 2014). 2012년의 한 조사 보고(농수산식품부, 2012)에 의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58.2%로 도시 지역의 만족도 52.7%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험의 과정에는 자아를 탐색하며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작은 단위로라도 직접 실현해보면서 전체 과정들을 성찰하기도 하는 순환학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좀 더 알게 되고 자신과 사회가 연결되어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충분히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들의 진로의식 분석

(1) 영역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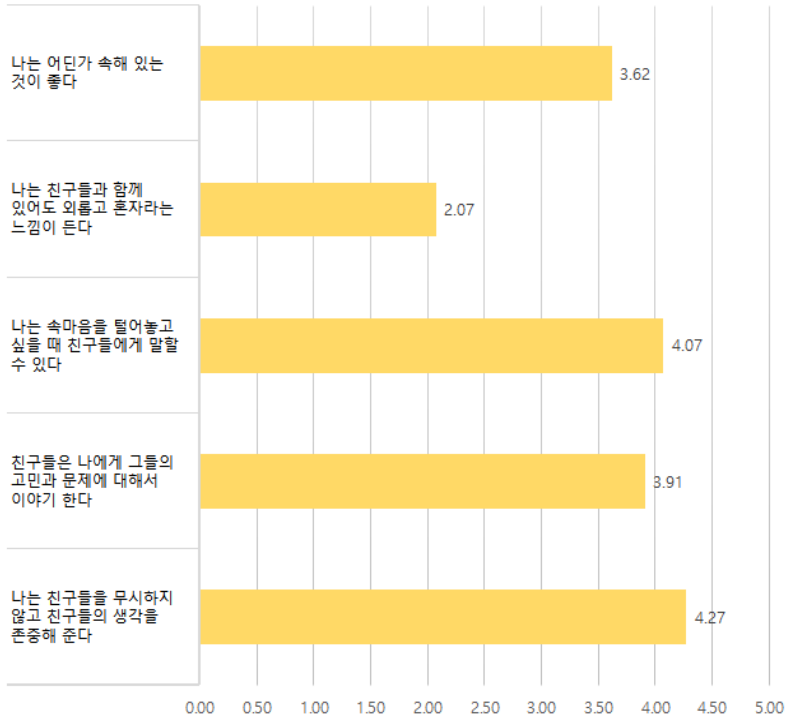
재능탐색워크숍은 청소년 주도적 프로젝트 실행 경험을 통한 학습과 성장 과정에 멘토와 함께하는 지역탐색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의 확대를 모색했고,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또래집단과의 관계 맺기, 팀 빌딩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협업경험의 확대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본 설문조사는 지역탐색, 팀빌딩, 멘토링 등의 요소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또래, 자아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은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① 또래, ② 체험(팀 프로젝트), ③ 공동체, ④ 자아발견, ⑤ 지역사회인식의 5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21] 본 검사 항목의 신뢰도는 0.903으로 나타났다.[22] 설문조사는 5점 척도(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로 진행되었다.

---

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5차년도)'의 또래애착문항과 지역사회인식문항, 공동체의식문항, 진로정체감문항 중 일부 문항을 또래·지역사회인식·공동체·자아발견식 영역에서 활용하였으며,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 평가 연구(2015)'에서 사용된 Walsh의 Responsibility Model-based program 문항 중 일부를 또래·체험 영역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최문형·정문기(2015)에서 공동체 영역 문항 일부를, 최인재 등(2009)에서 자아발견문항 일부를,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 평가 연구(2015)'에서 사용된 active citizenship(YPI) 문항 일부를 지역사회인식 영역에 활용하였다.

22) 문항내적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로 Cronbach's Alpha 수치로 나타냄.

[그림 3-3]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또래집단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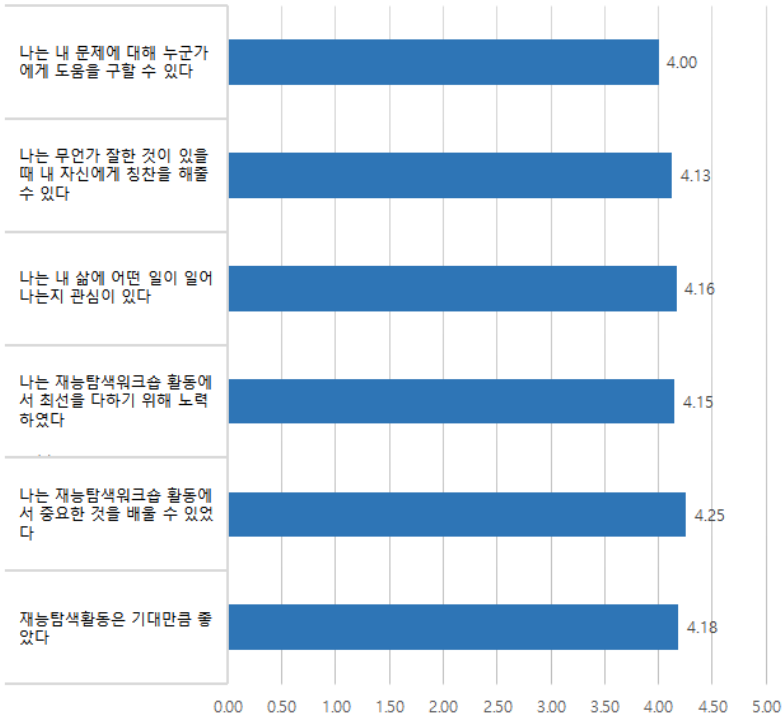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재능탐색워크숍 참여 청소년 55명

먼저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위 그래프에 나타나있다. 청소년기는 점차 가족보다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에게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며(Hartup, 1993; 이형실, 2014 재인용),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래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서로 지원과 이해 및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기도 한다(Hong, Doh, 2002; 이형실, 2014 재인용).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생각을 존중했으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래집단과 같은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보통'과 '그렇다'의 중간 정도의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능탐색워크숍 참여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내에서의 관계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4]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팀 프로젝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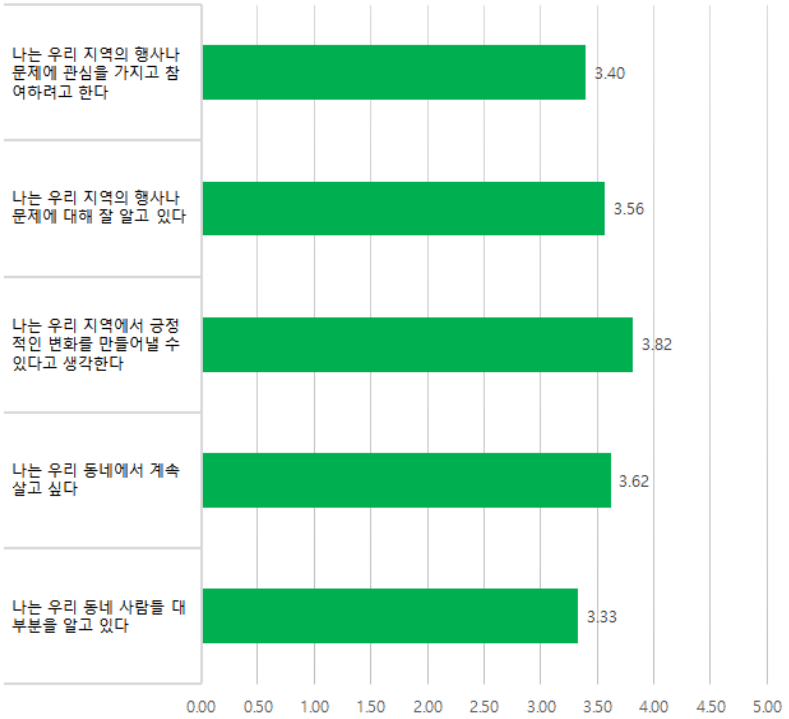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재능탐색워크숍 참여 청소년 55명

[그림 3-6]은 재능탐색워크숍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것에 대한 만족도와 팀 프로젝트 수행 시 개인들의 책임의식 등에 대해 조사한 팀 프로젝트 영역으로 6개의 세부 문항 모두 4.0점 이상의 응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능탐색활동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항은 4.15점을 보였고, '재능탐색워크숍 활동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문항은 4.25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재능탐색활동은 기대만큼 좋았다'는 4.18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재능탐색워크숍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만족한다는 평

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이러한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또는 '잘했을 때 자신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청소년들은 각각 4.0점과 4.13점을 보여 열린 마음으로 멘토 등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이 잘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있다'는 항목도 4.1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5]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지역사회인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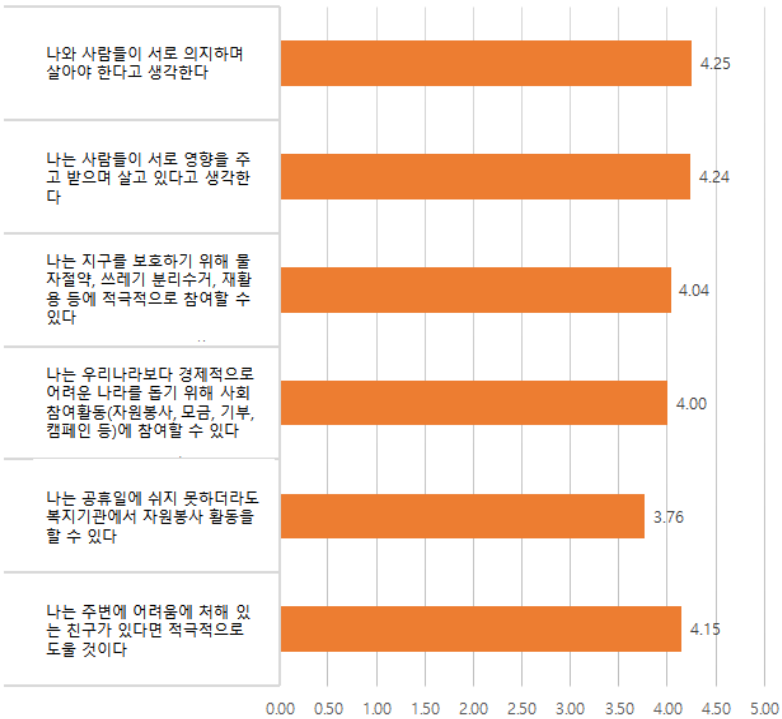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재능탐색워크숍 참여 청소년 55명

다음으로 살펴본 지역사회인식 영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활동 등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이다. 청소년들은 지역 내에서 치러

지는 행사나 일어나는 문제 등에 대해 5점 중 3.56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 행사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수준은 이보다 다소 낮은 3.40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3.82점의 점수를 보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6]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공동체의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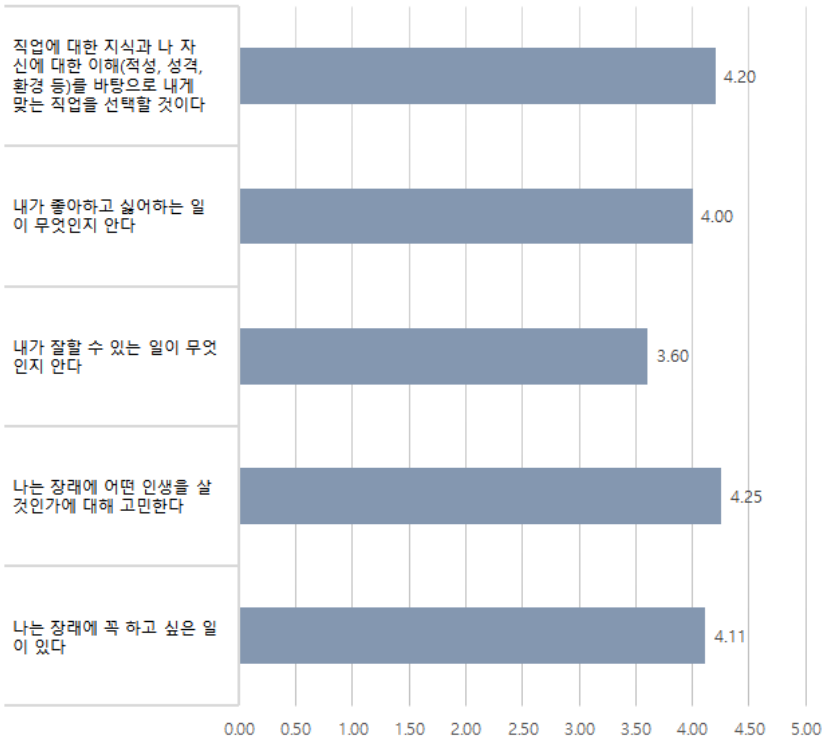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재능탐색워크숍 참여 청소년 55명

본 문항은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것이다. 본 영역은 재능탐색워크숍의 과정중 하나인 지역탐색활동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인식과 공동체의식에 연계될 수 있기에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공동체의식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참여, 봉사활동, 환경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항목으로 4.25점이었으며 유사한 항목인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도 4.24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주변의 어려운 친구를 도울 것이다'는 문항은 4.15점을 보였으나 환경보호참여 항목이나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바로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것에 좀 더 큰 욕구와 당위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문항은 3.76점으로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7]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 자아발견 영역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재능탐색워크숍 참여 청소년 55명

마지막은 자아발견 영역으로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갖고 있는 상과 진로 개발 역량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상상학교에서 진행된 기초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것을 꼽았었다. 본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항목에 청소년들은 가장 낮은 점수(3.60점)를 주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문항은 4.0점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4.25점)'는 문항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는 문항도 4.20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진로결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는 청소년들이 진로 · 직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결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팀 프로젝트, 지역사회인식, 공동체의식, 자아발견 등 5개 영역에서 대체로 고른 점수를 보였다. 또래집단 등의 소속감에서 약한 부정의 의견이 확인되었지만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인식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현재의 낮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의 응답이 확인되어 자신의 지역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아발견 영역에 있어서는 상상학교에서 진행된 기초설문조사나 여러 통계조사들과 같이 청소년들이 아직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재능탐색워크숍과 팀 프로젝트라는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

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또래집단과는 다른 이해와 사회적 판단이 개입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현재 체험학습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인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직접적인 만남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반성하고 정당화시키며 변형하고 개인적 ·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그들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알고 존재하고 행위하고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에 통합하길 추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McGill&Weil, 1996: 고미숙, 2006 재인용).” 는 말과 같이 고착된 관계에서 오는 경험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맺음과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자신을 통해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고미숙(2006)은 우리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만들도록 한다는 점에서 체험학습을 존재론적으로 본다. 그는 체험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기자신, 타자, 지역사회, 세계와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학습자에게 경험을 통해 인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재능탐색워크숍과 이후 이어진 내일찾기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위 다섯 요소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이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의식 및 진로관 분석

학교와 학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다. 입시위주의 공교육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교실붕괴 나아가 학교붕괴에 대한 담론이 폭넓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등 한 때 극심한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 당시 학부모들은 사교육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아닌 입시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했다.[23]

23)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모 여고 3학년 보충수업 교실. 1교시 시작종이 울렸는데도 이 반 학생 45명중 3분의 1 정도의 자리가 비어있다. 영어교사가 들어서자 여기저기 엎드려 자던 학생들이 깨어났다. 수업시작 후 30분쯤, 5~6명의 학생들이 교실 뒷문을 열고 슬그머니 들어섰다. 교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은 앞자리의 몇 명뿐. 10여명의 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다. 일부 학생은 2~3교시가 지나자 슬그머니 가방을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 경제구조의 다변화로 직업세계에 많은 혼란과 함께 다양성이 부여되면서부터 공교육 현장과 학부모 모두 지금 필요한 진로교육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진로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공교육 내에서의 진로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학기제를 비롯하여 오디세이학교 등의 다양한 모델과 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진로지도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안내하는 진로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이 이 필요한 이유는 실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의 진로지도가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4] 그러나 학부모들의 진로교육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교육을 어렵게 여긴다는 것이 확인된다(김완주, 1999; 임재수, 2000; 하정, 2007; 민보경, 2010 등). 하정(2007)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자녀의 진로지도를 어렵게 생각하여 학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자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구체적인 직업은 자녀가 스스로 탐색하여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가 결정하기 어려워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결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자녀의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즉 부모들도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적절하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어떤 개입을 해야 효과적인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자녀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학부모들이 올바른 직업의식과 진로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꾸려 교실을 나갔다. 교사들은 못 본 체했다. 낮 12시30분쯤. 5교시가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학생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저마다 책가방을 싸 학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해진지는 이미 오래다 며 교실 붕괴가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 말했다(조선일보, 1999. 8. 24; 나병현, 2001 재인용).

24) 한상근외(2001)의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 입학 시 희망학과(계열)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나 자신'외에 '부모님', '친구/선배'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상상학교 기초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나 자신' 다음으로는 '가족/선생님' 등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학부모의 진로관을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와 자녀가 직업에 대해 각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학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에 자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가도록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어떤 직업의식과 진로관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학부모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조사는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학부모 및 그 외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전라북도 완주군(삼례읍 및 고산면) 및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총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3-10] 참여 학부모들의 인적 특성

특성	구분	N	%
성별	남	34	33.0
	여	57	55.3
	미응답	12	11.7
학력	고등학교 졸업	7	6.8
	2-3년제 대학 졸업	19	18.4
	4년제 대학교 졸업	42	40.8
	대학원 이상	14	13.6
	미응답	21	20.4
거주지	완주군	75	72.8
	전주시	10	9.7
	기타	18	17.5

1) 학부모-청소년의 직업의식 분석

학부모의 직업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이들 학부모 세대의 진로관이 서로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 2단계 재능탐색 워크숍 참여 청소년 55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도구로는 곽병선 외 2인(1982)의 '학부모의 진로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설문으로 조사가 최근까지 진행되기도 하여 분석결과 간 참조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25] 본 설문은 ① 직업의식, ② 직업과 성 역할, ③ 직업가치, ④ 직업존엄에 대한 네 영역으로 구성되며 직업의식과 직업과 성 역할, 직업가치는 각각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직업존엄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문항 당 5점 척도(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로 응답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영역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표 3-11] 직업의식 영역 및 유형

	24점 미만	24점	24점 초과
직업선택	자기결정적	중립	운명결정적
직업과 성 역할	개방적	중립	폐쇄적
직업가치	과정지향적	중립	결과지향적
	18점 미만	18점	18점 초과
직업존엄	내용지향적	중립	형식지향적

(1) 학부모-청소년 직업의식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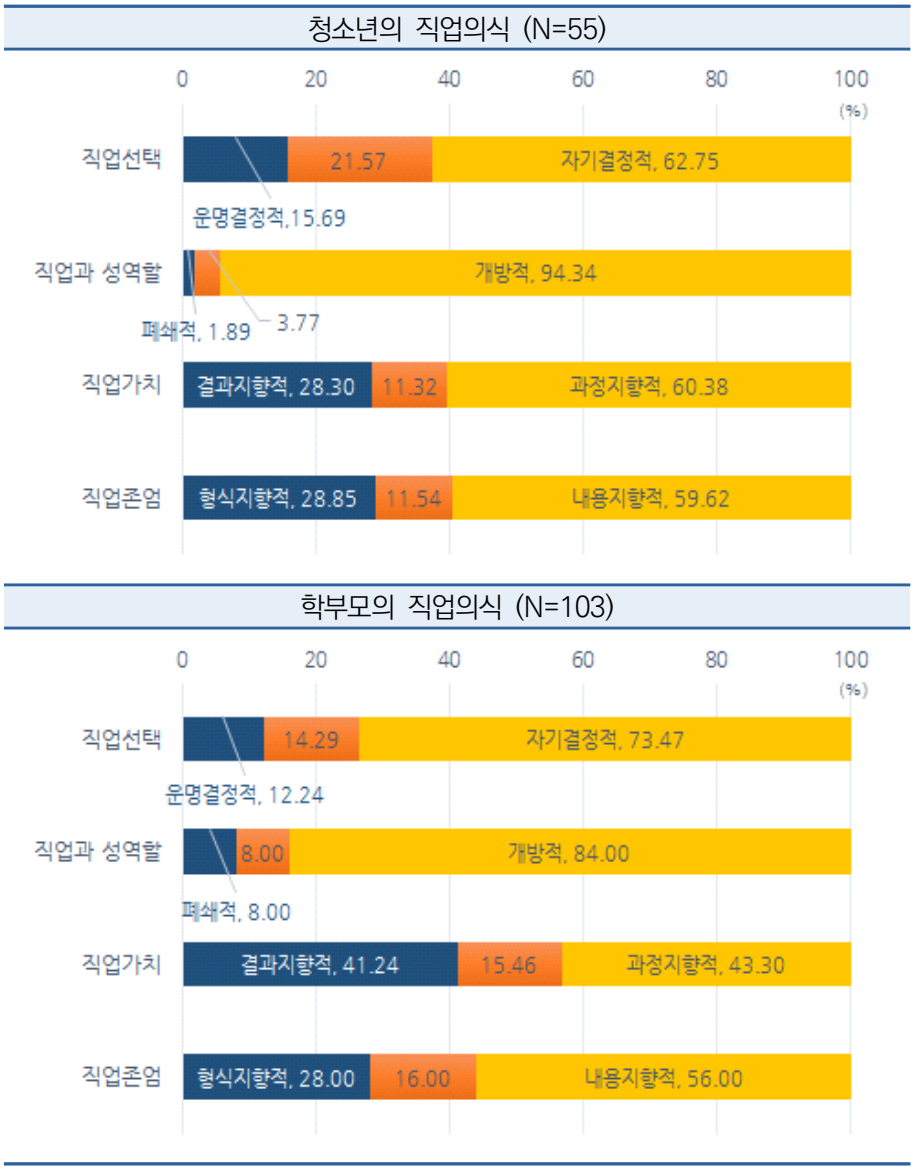
분석 결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청소년의 62.75%가 자기결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학부모는 73.47%가 자기결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상상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진로결정에 있어서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던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은 직업선택에 중립적 위치를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이 21.5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학부모는 중립적 선택이 14.29%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과 성 역할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부모에 비해 10%p 이상 개방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적이거나 중립적인 선택은 5.66%에 불과했다.

25) 동일한 설문을 활용한 것으로 백은영(2010)의 어머니 진로관 분석 연구와 학부모의 진로관과 진로교육 참여 실태(KRIVET Issue Brief, 2013)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

학부모도 개방적인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폐쇄적이거나 중립적인 선택도 각각 8%로 확인되었다.

[그림 3-8] 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의식 분석결과



직업가치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이상실현, 재미, 적성, 흥미 등에 가치를 두는 과정지향적인 측면이 보수(임금), 안정적 생활 등에 가치를 두는 결과지향적인 면보다 32%p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학부모의 경우 과정지향적 측면과 결과지향적 측면이 40% 비율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임금이나 안정성 등 보다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직업존엄 영역에 있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점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노동을 육체노동보다 우월한 것으로 선호하는 형식지향적 측면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28% 정도로 나타난 반면 모든 직업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는 내용지향적 측면은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국 초 · 중 · 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7,211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와 동일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직업선택에서 자기결정적 성향이나 직업과 성 역할에서 개방적인 성향도 본 연구에 참여한 완주 및 전주 학부모의 선택 비율이 더 높으나, 직업가치 영역의 과정지향적 측면과 직업존엄 영역의 내용지향적 측면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2013년의 연구에서 결과지향적 가치를 선택한 학부모의 비율은 무려 72.7%이며, 형식지향적 가치를 선택한 비율도 67.5%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내일상상프로젝트 학부모 진로관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본 설문조사 참여자는 다수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 거주하는 이들로 자녀교육을 위해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 특히 완주군 고산면은 고산향교육공동체 등이 형성되어 해당 지역 내의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대안적인 교육을 모색하고 진행하는데 적극적이며 다양한 지역참여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표본의 특성이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학부모들에게서 직업에서의 이상실현과 흥미라는 가치를 좀 더 중시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인식이 보다 크게 관찰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2) 학부모-청소년 직업의식 분석결과 세부비교

앞서 분석한 결과 직업선택, 직업과 성 역할, 직업가치 세 영역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다소 다른 진로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문 개별 문항 중 어떤 문항에서 청소년과 학부모의 시각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2] 학부모와 청소년의 직업의식 차이

(단위: 점/5점)

진로관	문항	학부모 점수	청소년 점수
직업 선택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운명적이다	2.67	3.46
	좋은 직업을 갖는 데에는 노력보다 가정의 배경이나 환경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2.97	3.17
	자식이 부모의 직업을 이어 받는 것은 자연스럽다	2.72	2.34
	교직은 천직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다	2.87	2.63
	사람들의 직업선택은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우연적이다	2.67	2.87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떤 한 직업을 갖게 된다	2.47	2.76
	직업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2.50	2.65
	일단 선택된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2.02	2.13
직업과 성 역할	직업을 선택할 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신중해야 한다	2.32	2.15
	집안 살림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2.33	1.74
	어떤 직업에서든지 남녀가 동일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2.24	1.85
	남자들은 대개 여자 책임자 아래에서 일하기를 싫어한다	2.73	2.06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자녀를 기를 책임이 있다	2.68	1.76
	여자들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1.88	1.56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직장에서 남자들보다 승진에 관심이 없다	1.86	1.74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직장에서 더 높은 결근율과 이직률을 갖고 있다	2.56	2.17

(단위: 점/5점)

진로관	문항	학부모 점수	청소년 점수
직업 가치	사람들은 직업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더라도 월급이 적으면 택하려 하지 않는다	3.11	2.81
	직업을 택하려면 취미에 맞는 직업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	3.16	2.65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려는 가장 큰 원인은 월급이 적기 때문이다	2.77	2.70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보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2.66	3.19
	자신의 취미와 소질을 키울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월급이 많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2.69	2.65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을 가장 중요시한다	2.99	2.83
	직업은 독립해서 살기 위해 필요하다	3.57	2.87
	직업은 자아실현보다는 생계유지에 더 목적이 있다	3.18	2.67
직업 존엄	직업에서 귀천은 있게 마련이다	2.55	2.89
	이왕이면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갖겠다	2.77	2.63
	직업에는 존경을 받는 직업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2.62	2.47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은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3.27	2.56
	노동적인 직업보다 이왕이면 정신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2.71	2.98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든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04	2.87

주 1) 5점척도: 매우 반대(1), 반대(2), 보통(3), 찬성(4), 매우 찬성(5)

2) 두 집단에 대한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셀에 음영을 나타냄

3) 통계적 유의성의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평가

[표 3-12]는 직업의식 영역별 세부문항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네 가지 영역 별 유형에서 직업과 성 역할, 직업 가치 영역에서 학부모와 청소년의 유형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위 분석결과 세부 문항 점수가 그러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차이가 나타난 두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일과 결혼, 자녀 양육 등에 있어 학부모 집단보다 여성의 직업과 일에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선택 시에는 학부모 집단에 비해 임금이나 안정된 생활보다는 취미, 이상 그리고 자아실현이란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성 역할에서 학부모와 청소년 두 집단 모두 1점대~2점대의 낮은 점수를 보여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가에 대한 고려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성 역할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안 살림', '직업에서의 남녀 동일성', '자녀 양육', '결혼 시 퇴직' 등의 항목에서 청소년들은 학부모 집단에 비해 더 큰 부정을 보여 청소년들에게서 성 역할에 대한 개방성이 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가치에서는 학부모 집단이 '직업은 독립해서 살기 위해 필요(3.57점)', '직업 선택 시 취미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3.16점)', '직업은 자아실현보다는 생계유지에 더 목적(3.18)' 등으로 약한 긍정을 보여 안정된 생활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집단은 '직업은 독립해서 살기 위해 필요(2.87점)', '직업 선택 시 취미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2.65점)', '직업은 자아실현보다는 생계유지에 더 목적(2.67)' 등으로 약한 부정을 보여 취미와 자아실현 등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보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항목에서 학부모 집단은 2.66점, 청소년 집단은 3.19점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경우 일의 이유를 이상실현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지만 청소년 집단은 일을 통한 이상실현에 다소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부모의 교육관 및 자녀 진로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분석

여기서는 학부모들의 교육관 및 자녀에게 진로지도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관에 관한 조사 자료는 최상근 등(2010)의 학부모 실태 예비조사 중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 영역의 일부 문항으로 선택형 응답형태로 답변항목을 다소 변형하고 기타 답변을 추가하였다. 학부모의 진로관련 정보 습득 경로 및 자녀 진로지도 시 어려

움은 조희경외(2013)에서 사용된 각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직업의식 설문에 응답한 103명과 동일하다.

(1) 학부모의 교육관 분석결과

먼저 교육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3-13]과 같다.[26]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교육의 목적과 가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학부모들은 인성을 길러주기 위함(45.9%)에 가장 많은 선택을 보였고,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함(23.5%)과 소질이나 적성을 살려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함(23.5%)이 동일한 수의 선택을 받았다.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학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및 교사(3.2%)보다 국가의 책임(13.8%)을 높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 가치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함을 83.8%의 비율로 선택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강조해야 할 교육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87.0%)을 선택하였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주된 목적과 같은 맥락으로 교육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및 기능으로 인성지도를 선택한 비율이 79.1%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지도(7.0%), 직업훈련, 지역사회발전(각 5.8%) 등의 답변도 확인되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단계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52.9%)가 4년제 대학교를 선택했으나, 24.5%의 응답자가 기타 답변으로 '자녀가 원하는 만큼'을 선택함으로써 자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교육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의견도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 각 문항에 따라 결측값이 달리 발생하여 합계에 차이가 나며, 빈도표기는 유효 응답 빈도와 유효 퍼센트로 기재하였다.

[표 3-13] 학부모의 교육관

(단위: 명, %)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39	45.9	학부모	72	76.6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20	23.5	학교 및 교사	3	3.2
소질이나 적성을 살려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하여	20	23.5	국가	13	13.8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보상받기 위하여	2	2.4	지역사회	3	3.2
기타	4	4.8	기타	3	3.2
합계	81	100	합계	91	96.8

우리 사회는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는 어떠한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내용 제공	83	83.8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87	87.0
성취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내용 제공	15	15.2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교육	8	8.0
기타	1	1.0	기타	5	5.0
합계	79	100	합계	88	93.6

교육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및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합니까?		
인성지도	68	79.1	과제 및 교과학습 직접 지도	24	25.3
학습지도	6	7.0	학습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18	18.9
직업훈련	5	5.8	위 둘다	43	45.3
지역사회발전	5	5.8	지원하지 않음	6	6.3
기타	2	2.4	기타	4	4.4
합계	81	100	합계	91	100

자녀를 어느 단계까지 교육시킬 계획인가요?		
4년제 대학교	54	52.9
고등학교	11	10.8
대학원박사	6	5.9
2-3년제 대학	4	3.9
대학원 석사	2	2.0
기타	25	24.5
합계	102	100

(2)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정보 습득 경로 및 어려움 분석 결과

학부모들이 자녀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그림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가 가장 많았으며, 진로교육 관련 도서와 친구, 학부모 등 지인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직업진로정보 전문사이트 활용은 방송매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관련 행사,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방송매체나 지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학부모의 진로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9] 진로관련 정보 습득 경로

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유효 빈도 103, 전체 응답 빈도 138로 나타남

학부모가 자녀 진로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14]와 같다. 5점 척도 응답으로 진행되어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자녀와 대화의 어려움(2.01점)', '학부모가 원하는 직업과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 달라서 충돌(2.06점)'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자녀와의 관계가 대체로 원만하며 직업에 대한 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름(2.77점)', '진학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름(2.86점)' 항목에서는 약한 부정을 보여 필요한 직업정보나 진학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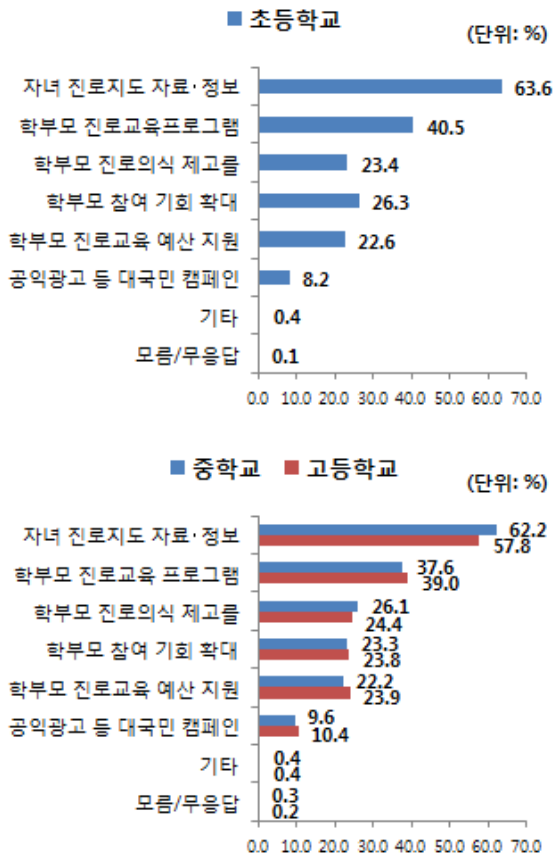
하지만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진로체험활동의 부족(3.38점)'이나, '자녀진로지도와 관련된 좋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부족(3.18)'에는 약한 찬성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4] 자녀 진로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

문항	평균점수	(s.d)
자녀와 대화하기 어렵다	2.01	0.838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2.58	0.908
내가 원하는 직업과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 달라서 충돌한다	2.06	0.870
직업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2.77	0.979
진학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2.86	1.005
자녀진로지도와 관련된 좋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3.18	0.953
청소년들이 참여할 진로체험활동이 부족하다	3.38	0.912

2016년 진행된 진로교육현황조사결과(장현진외, 2016)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녀 진로지도에 필요한 지원 요구 사항으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자녀 진로지도 자료 · 정보 제공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 진로의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연수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자녀 진로준비(지원)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29.1%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어머니(29.8%)가 아버지(21.0%)보다 더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진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0]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에 필요한 지원요구사항



출처: 진로교육현황조사결과발표 보도자료(교육부, 2016.12.20)

3) 소결

학부모와 청소년의 직업의식 분석에서 나타난 차이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낳은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의 직업관에 자녀를 구속하기 보다는 자녀들이 지닌 직업관을 존중하고 그러한 직업관을 낳게 된 변화를 인정하며 자녀들의 진로설계가 사회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및 기타 관계 기관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녀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 등을 실시

하여 학부모들이 환경의 변화, 산업기술의 변화에 맞춰 자녀의 진로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이름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배우는 것과 삶을 연결하여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먼저 올바른 직업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인 진로교육에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자녀가 맞이할 미래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나 내일상상프로젝트와 같은 진로체험이 목표하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에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일어나고, 그것이 생산적인 경험으로 해석되어 진로정체감[27]의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7)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 등에 관해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성과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일의 세계와 연결 짓는 데 영향을 주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피기용, 2005; 신임선·장윤옥, 2012 재인용).

Ⅳ.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말하는 청소년들의 일과 삶

1.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경험
2. 일과 직업 그리고 삶
3. 청소년들이 말하는 노력의 의미

IV.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말하는 청소년들의 일과 삶

내일상상프로젝트의 2, 3단계인 재능탐색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지역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고자 FGI를 진행하였다.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능탐색워크숍은 자아발견, 또래집단,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등의 요소가 프로그램 진행 당시 발현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기획하고 실행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이 그간 고민해왔던 진로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래집단이나 지역사회, 자신의 대한 삶에 대해 어떤 새로운 생각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체로 참여자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청소년 중심 실행 프로그램이 많은 새로운 경험을 안겨줬다고 답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늘 만나던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람과 관계에 대해 그간 몰랐던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과 진행한 심층면접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진로교육이 체험의 양적 확대가 아닌 꼭 담아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경험

학교급이나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이 받는 진로교육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준비 자세와 생각도 비교적 제각각이다. 우리가 만난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은 대체로 아직 특별한 꿈이 없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외부 강의, 목공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와중에 진로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건 직접 참여해서 한 거니까 백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직접 하는 게 낫

다는 느낌. (청소년 P)

강의는 들으면 애들이 사실 하나도 안 듣고 다 까먹는데, 이건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 (청소년 O)

기간이 좀 짧다.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니까. (청소년 O)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몸으로 부딪쳐서 진행한 프로그램인 만큼 직접 참여한데서 오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주어진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일회성의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을 지는 고민해볼 문제다.

진로교육에 있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이들은 어느 정도 취업의 경로가 정해진 친구들이다. 고등학교에 입학 할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2학년이 되면 해당 전공에 대한 실습 중심의 수업을 하고 3학년 때는 미리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취업에 특성화 된 학교의 성격상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해도 학교 내에서의 지원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

저희학교가 궁극적으로 취업이 목표다보니 과별로 취업관련해서만 특강이 들어가거나 프로그램이 있거나 방과후에 지원을 해주거나 목표가 다 취업 쪽. 대학 진로 쪽은 나쁜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 선생님들도 나가면 나가는 거지 이런 마인드인데. 대학 진로나 예체능이나 이런 거라든가 바꾸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어요. (...) 아예 정해진거죠 들어오고 나서부터. (청소년 C)

들어오자마자 교장 샘이 말씀하시길,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대학도 정 가고 싶으면 취직하고 하라고. (청소년 D)

전공 영역 외에 다른 진로를 꿈꾼다는 것이 다소 어려운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이미 정해져 들어온 전공에서조차도 살짝은 헤매고 있었다. 재미있어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혹은 다른 학교에서 떨어져서 2순위로 들어오고 선택한

학교에서 갓 입학한 1학년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 진로시간이 있긴 한데 그냥 놀아요. 딱히 하는 건 없어요. 자기소개 쓰는 거 연습하기도 하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것은 취직하는데 쓰는 건데 어딜 쓸지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그걸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거다 이런 얘기 해줬으면. (청소년 D)

상상학교에서 사람책을 진행하고 청소년들과 짧게 나눈 이야기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뭘 선택하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진로에 대한 청소년의식조사(2013)를 보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다양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46.5%)'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보다는 진학 중심의 진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에서 진행 된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저 꿈같았다고 한다. 여러 직업인들이 참여하고 상담과 진단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참여자가 "삼인행(재능탐색 워크숍 팀 프로젝트)"에서 직접 만나고 싶은 직업인들을 만나며 들었던 이야기와 다소 다른 느낌이었다고 했다.

> 최근에 학교에서 거금을 들여서 한 게 있는데, 대학교 가는 상담을 하면서 부스별로 운영을 한 건데요, 경찰관도 오시고 소방관도 오시고 하는 강의랑 자소서 쓰는 강의랑 성격진단 하는 부스 강당에 배치해서 하는 거 강당에서 하루 했어요. (그때랑 3인행 가서 만났을 때랑 어땠어요?) 3인행이 더 도움. 학교에서 한 건 다 말이 다르고 좀 꿈같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청소년 J)

물론 이러한 차이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이야기를 듣느냐, 전혀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청소년들은 그러

한 관심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직업의 종류, 이름, 세상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유형,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곧 진로 선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진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어떤 이름을 가진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이름의 회사에 들어갈 것이다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회사를 알려달라, 직업을 알려달라, 직업 및 진로 정보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진로교육이 아직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는 형태가 아니라 그저 이러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어느 대학이 있고, 어느 과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논의했던 과거의 진학상담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 다음에는 이런 걸 또 한다면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리스타 자격증, 요리사 자격증은 연령 제한 없던데. 저희 나이에 학원가기도 애매하니까. 그런 시험치는 것 까지 있으면 좋겠다. (왜?) 우리나라는 실력보다는 자격증을 알아주니까.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도 엿볼 수 있다. (청소년 N)

한 청소년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개선 방향으로 위와 같은 답변을 주었다. 청년들이 물질적 스펙을 사람에 갖다 대며 스펙 좋은 사람, 스펙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 때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해달라는 것이었다. 청소년의 말이 일면 너무나도 현실적이나 부정할 수 없었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일의 기술적인 면을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로부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연구진 또한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 답변이기도 했다.

물론 현실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해주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박윤희(2016)가 대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직업정보 습득을 통해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현실적인 직업정보 습득이 이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해당 시기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해 중요한 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센터가 활발해지는 것도,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이 중요해지는 것도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미스매치[28]를 일정정도 풀어보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이러한 취업중심과는 달라야 한다. 청년들은 어쩌면 지금 당장 사회에 내몰려 어떤 줄이든 잡거나 어디로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를 선택 당해야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에게는 짧게는 2~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평생직업도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의 구심점은 직장이나 직업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삶을 고민하게 하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 해 왔지만 정작 자신의 공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다. 그것이 우리 교육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자신의 앎과 삶, 그리고 배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곽병선, 2013).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일 또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삶과 삶의 가치는 무엇에 있는지도 찾아보았다.

2. 일과 직업 그리고 삶

자아발견에 대한 청소년들의 설문조사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 대해 다른 답변을 한 것을 기억하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은 알지만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던 이들이었기에 우리

28) 미스매치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만 서로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일치의 종류는 지역별, 직업별, 산업별, 학력별 및 임금별 불일치 등이 있음(최창곤, 2009).

는 이들에게 일과 직업의 의미 그리고 직업으로써의 삶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에 대해 물어보았다.

다음 표는 청소년들이 말하는 일과 직업 그리고 꿈의 의미이다. 일과 직업은 사전상 유사한 의미이고 그래서 목적상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일이 직업에 비해 보다 원론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들 역시 직업이란 것에 좀 더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청소년들이 말하는 일과 직업 그리고 꿈

일	직업	꿈
- 제가 할 일을 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단어만 들었을 땐 행복할 것 같은데..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 설거지 할 수도 있고 직업에 속해있는 것일 수도 있고 - 모든 생활이 다 일, 자는 것도 일 - 어떠한 것이든 감정을 느끼는 것, 행복을 느끼든 고된 감정을 느끼든	- 그에 걸맞는 이름일 뿐이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직책 같은 것 - 뭔가 구속당하는 느낌, 그 일이 아무리 즐거워도 즐겁지 않은 그런 - 하도 많은 의미가 있어서..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삶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유지 하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 누구나 가져야 할 것, 돈 벌려고 하는 것 - 만족하는 일이 직업, 행복하게 하는 일 - 먹고 살려고 벌이 수단으로 갖고 있는 것	- 평생 살면서 이뤄보고 싶은 것 - 자신이 원하는 것 -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들은 직업에서 구속당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직업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직업을 자아의 발견 및 실현과는 약간 동떨어져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편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직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것은 안정성이다. 안정성에 대한 가치부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중고등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관찰한 연구를 보면 능력 발휘, 다양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지도력 발휘, 더불어 일함, 사회봉사, 발전성, 창의성, 자율성 등 11개 직업가치관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이 일관되게 중시하는 가치는 능력 발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수와 발전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2001년도에 6순위였던 안정성은 점차 순위가 상승하여 발전성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다(임언외, 2012).

이러한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가치관은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삶에 대한 가치충돌을 낳는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직업으로서 가지게 될 일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답변을 보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이나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 즉 내 직업이 내 삶을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하는 것이다.

>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학업문제가 큰 것 같아요. (청소년 D)

> 바라는 삶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취업을 나가서 일단 여유를 가진 다음에 취미생활이나 봉사나 이런 것을, 저희 학교가 프로그램이랄 것도 없고, 알려주는 것도 궁극적으로 취업에 취중 되어 있어요. 다른 길을 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청소년 C)

학교에서도 취업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어떤 삶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직업의 종속변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들은 직업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삶의 가치들을 직업에서 획득하는 경제적 여유와 안정적인 삶을 통해 추구하려는 경향도 보이는

것이다.

모든 청소년들이 꿈과 일과 직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의견'은 보다 학교급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많이 확인되었다.

> 요리사가 꿈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결정한 꿈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청소년 I)

>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리가 재미있어요. (청소년 S)

> 한창 꿈이 바뀔 나이인 초딩 때는 요리사가 하고 싶었는데, 꿈이 계속 바뀐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 R)

물론 이들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함께 했다. 하지만 꿈꾸는 일에 대한 의지와 보다 유연하게 삶을 사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한 건데, 웹툰 작가도 직업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 제가 절실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을까. 활동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힘들어도 하고 싶어요. (청소년 F)

> 못 먹고 살면 다른 거 하죠 뭐. 마술사나 이런걸로 정한게 아니라요 사회복지나 이런 걸로 해서요 봉사활동 다니는 마술사. 제가 나이 먹고 했을 때 미래는 문화생활 쪽이 커지지 않을까란 얘기를 들었는데. 스페셜한 게 마술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나중을 생각하면 마술하는게 나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청소년 H)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가 보여준 것처럼 안정된 회사를 그만 두고 자신의 삶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힘들어도 하고 싶다는 말들은 단순히 순진해서 혹은 어려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사회를 알지만 그래도 자신에 거기에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과 삶을 향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우리는 지난 상상학교에서 진행한 첫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인생의 성공요인으로 꼽은 '노력'에 대해서 직접 그들의 목소리로 듣고 싶었다. 내 삶은 내 직업에 의해 결정된다거나, 내 삶은 내 직업에서 획득한 여유로 보다 알차진다거나, 내 삶은 비록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노력도 어쩌면 저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담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 청소년들이 말하는 노력

노력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자조적인 단어가 되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적 불안과 청년 실업, 노동시장의 위기에서 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렸었다. 한때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위로받던 청춘들은 아프면 환자라고 항변하며 노력의 배신을 말한다. 과연 노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온 것일까? 누군가는 노력에도 유형이 있다고 한다(안데르스 에릭슨, 2016[29]). 배신당하는 노력과 배신당하지 않는 노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건 기계적인 노력이고 그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 가능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제는 개인의 노력 부족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올바른' 노력의 부족을 탓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만난 청소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노력의 결과물들에 대해 간혹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묵묵히 실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노력의 결과를 믿고 있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인가?

---

29) 안데르스 에릭슨(2016), 「1만 시간의 재발견」, 비즈니스북스

저는 일단 중2때부터 주말이 반납이에요. 주말이 반납이었고요. 같이 놀고 싶고 하긴 했는데 안놀고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그리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싶기도 하고. 학원이나 그런데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면서 보면 고2까지 성적이 안나오니까 미술을 선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일찍 선택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저한테 많이 투자하시는 부모님한테 감사하기도 한데 좀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 (어떤 현실?) 일찍 시작했고 또래에서는 주변에서나 잘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하고. 엄청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청소년 F)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나오죠 결과가. 공부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샘이 알려주신 것도 다시 복습해보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니까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청소년 G)

수저계급론이 한 때 활개 치며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회경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연구결과들(김세직외, 2015; 김낙년, 2015)조차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소득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해주는 요즘 과연 금수저와도 노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을 때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제가 진짜 노력하자고 마음먹었으면 한번 연습할 거 열 번을 할 거고. 금수저가 저보다 더 잘한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스무 번 하면 난 그 이상으로 하면 그 사람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청소년 H)

그런 경우가 승부조작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저는 두배 세배 많이 했고 근데 그 사람은 힘이나 권력으로 일등을 차지했다 하면 그 순간에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전 두배 세배 한 게 있으니 실력은 쌓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보다 열심히 한 게 일등만 알아주더라도 전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청소년 F)

노력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결과에 대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권력이라든지 돈을 써서든지 하더라도 마지막 승자는 노력한 사람이 될 거에요. 실력차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 (청소년 G)

그들이 말하는 노력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잘 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었다. 똑 같은 트랙에서 비록 누군가가 저 멀리 앞서서 출발한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뛰었고 결국은 완주를 했으니 나에게도 또 다른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른 의견도 확인되었다. 이들에게 노력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지만 다소 힘들고 어려워서 끝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기도 했다.

>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안하고 싶은 걸 안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게 노력이 될 수도 있고, 포기하면 노력이 그만큼인 거고. (청소년 D)

>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노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뇨. 한계까지 가는 건 힘드니까요. 노력이란 게, 자기가 가진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노력인데, 난 힘들어서 그 노력을 하기 싫다는 것. (청소년 E)

> 노력을 한다는 게 자기가 아까 말했듯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싫을 거 아니에요. 싫다는 감정이 단순한데, 싫으면 멀리하는 것. 노력은 싫다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뛰어들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 (청소년 C)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이게 보다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느꼈다. 힘들게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으면 즉 노력의 댓가가 주어지면 그것은 참 달콤한 열매이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기회비용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내 앞에 있는 컵을 옮기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노력 많이 했구나라고 하잖아요. 힘든 것을 해내는 게 노력이니까 부정적이지 않지만, 힘든 것을 해내는 게 노력이다보니까 쉽게 할 수 없죠. (청소년 D)

이러한 차이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미 한 발 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다가선 이들이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사람에 따른 차이일 뿐일까?

>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하기 싫어도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A)

> 노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끝까지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끈기가 없어서. (청소년 B)

> 금수저에게는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저 같은 흙수저는 직업을 구할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노력은 다 필요한 거 같아요. (청소년 D)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사회의 개인성취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어릴수록 심해져 청소년(17~19세)과 청년(20~39세)은 10명 중 7명이 우리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우세하기도 했다.[30]

과거 어른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과거와는 다른 길을 걸어오고 다른 현실에 놓인 청년들에게 과거와 같은 방식을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로에 따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경제적 상황이 놓인 현실을 청소년들이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청소년들 혹은 부정적인 청소년들 이들 중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노력을 통한 성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사회구조적 현실이 그러한 학습을 이미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에서

30) 박미경, "청소년·청년 10명 중 7명, 성공위해서는 노력보다 배경이 더 중요해", 한국NGO신문, 2016.06.15.

해야 할 것은 이들이 말하는 노력과 성공적인 삶이 어떤 직업이나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확고한 삶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후에 어떤 직업인이 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가져다 준 의미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전제는 경험을 통한 학습과 변화였다. 그리고 세부 요소로 협업, 공동체, 지역사회 인식, 자아발견 등을 포함하였다. 재능탐색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에 걸쳐 청소년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다.

청소년들은 이 경험이 모르던 사람들(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자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기회, 새로운 경험(장터 판매, 여행, 과학캠프, 삼인행 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전공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 경험을 한 특성화고 청소년들에게 본 경험은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 발판이자 문제해결력을 키운 기회가 되기도 한 듯하다.

> 그냥, 알아가는 게 많은 거 같았어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수정하자면 알아가는 것 보다 배워가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기도 하고 불편한 사실들을 좀 알아가기도 하고. (불편한 사실?) 프라이버시. (본인에 대해 알게 된 게 많은 거에요?) 저에 대해 알게 되었다기 보다는 포괄적이라 딱 집어서 얘기 못하겠는데 제 주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친구들이나 이런거?) 더 넓게 나갈 수도 있어요. (청소년 C)

> 나중에 미래에 어떤 지점들이 계기가 되었나? 뭐가 있었나? 미래에 저희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평생 실업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 모든 게 순간, 순간이죠. (청소년 E)

> 자전거 탈 때 브레이크랑 서는 것 먼저 배우잖아요. 가다보면 짤릴 수도 있고, 이거 하면서 사소한 거라도 어려운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해가는 게 발전해가는 거 같아요. 어려움... 사소한 거 많았죠. 계획했던 게 안되었다거나, 준비했던 게 빠졌다거나, 생각했던 것 보다 못 벌었다거나, 그런 걸 다 대처해가는 게 배운 거죠. 나중에 대처해가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청소년 D)

> 공감을 하고, 이번에 3차 때 부산 가서 코이 동아리를 만났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안갔거나 자퇴를 하거나 이 사람들인데. 토크콘서트 준비하는 걸 봤어요.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굳이 학교를 안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인식개선이 된 거 같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아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인식이 저도 있었던 거 같아요. 내재돼있던 거 같아요. 그게 좀 사라진 거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 A)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관심 없었던 친구에게 알려주고, 비전이 없는 친구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아니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진로직업강의도 좋지만 그것을 열 번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한 번 해보는 게 낫다며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런 경험이 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이는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인프라 부족과도 관계가 있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의 한계에도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으며 특히 전주나 순창 등의 지역에서 이런 지원은 접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특성 상 지역탐색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순창 지역은 규모가 작은 특성상 청소년들이 멘토를 찾기 위해 지역 밖으로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과 다양한 콘텐츠가 없는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내에 자신들이 희망하는 과학과 마술이나 미술관련 기관이 생기는 것에는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했다. 즉 그만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런 걸 받아들일 상황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지역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순창이 바껴야죠. 순창에다 마술 관련된 걸 짓는다하면 제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F도 학원을 광주로 다니고 그러는데 순창이 아직 그런 걸 받아들일 상황이 안되는거고. 그럼 순창이 바뀌어야죠. (청소년 H)

반면 순창에서 과학캠프를 주도한 청소년은 도시가 아닌 자신의 지역, 시골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자신들이 하면 다른 지역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순창이 막 발전, 좋아지는 방향 그런 식으로 순창을 좀 알릴 수 있는. 도시 애들 있고 촌 애들 있잖아요. 저희가 촌의 아이들이에요. 사람들이 도시애랑 농촌 애들 비교를 하면은 도시 애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잖아요. 도시권에 좋은 학교가 많고. 인터넷 뉴스를 보면 도시권 애들이 많이 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권 애들뿐만 아니라 촌 애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과학동아리. 외부 쪽에서 있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와요. 순창에 과학캠프가 없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면 다른 지역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청소년 K)

지역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매우 타당하고 내가 먼저 우리 지역에서 해보겠다는 자세도 바람직하다. 어쩌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탐색을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게 가능할지 안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러한 판단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동아리는 후배들을 모집하여 올해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보았다. 특히 농촌지역인 순창의 청소년들이 중소도시인 전주의 청소년들보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았다.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것이 다른 소규모의 지역으로도 확장해가며 이외에도 보다 구조적이고 경험학습적인 다양

한 형태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청소년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V. 결론

청소년들은 어떻게 진로를 준비하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바라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청소년들이 꿈꾸는 '일'은 그들이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데 어떻게 작용할까?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한국 교육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앞두고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고 국가에도 중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거시적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물론 현재의 진로교육은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고 이를 발현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가에 대한 양적 평가가 대부분으로 실제 청소년들이 과연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았는지 또는 찾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교육의 변화가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효과성이 어떻게 진로탐색과 자아발견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체험을 통한 경험학습 이론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체험교육협회(AEA)에서 제시한 체험교육의 원리는 체험학습과정 전체에 걸쳐서 학습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호기심 있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책임을 맡고 창의적이 되고 의미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고미숙, 2006). [표 5-1]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실행 구조로서 전체 프로그램 내용 중 청소년들의 역할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주도적인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프로젝트 내용 구성과 보완 및 실행 전 과정에 멘토의

결합 형태 또는 독립된 팀 형태로 참여하였다.

[표 5-1] 내일상상프로젝트 실행 구조

협업 및 운영 구조	희망제작소 총괄 및 연구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완주) 우리동네문화기획단 (로컬요리사/밴드) 삼삼공작소 동네방네요리조리 시간을잡는소녀들	≫ ≪	전주YMCA(전주·순창) 삼인행, 지금만나러갑니다 밥! 생명의고리잇기 지금만나러갑니다 ver. 2 밥! 생명의고리잇기 ver. 2
실무 진행 내용	- 상상학교 참여학교 섭외 - 상상학교 사람책 협의 및 구성 - 재능탐색워크숍 및 내일찾기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모집 및 운영 * 프로젝트 기획 지원 및 멘토 매칭 * 프로젝트 실행 지원 및 피드백 * 프로젝트 결과 공유회 지원 - 지역 유관기관 및 학부모, 교사 네트워킹 운영 * 간담회 진행 *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관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 포럼 진행 ① 지역 내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시사점 도출 ② 지역 내 교사, 학부모 연계 방안 모색 ③ 청소년 주도형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의 성과 탐색 등		
청소년의 역할	- 프로젝트 주제 발견/지역 탐색 - 만나고 싶은 멘토 선정 - 프로젝트 기획/보완/실행 (컨택, 협조 요청 등 포함) - 각 프로젝트 팀별 '지기(리더)' 활동 - 프로젝트 실행 예산 관리 - 프로젝트 결과 공유 및 평가 진행		

한계 및 개선사항	- 지역 단위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피드백 부재 - 열린 주제 하에 청소년 자율적인 프로젝트 기획력 함양 필요 - 멘토의 역할 명확화(개입 범위) - 장기적이며 정기적인 스케줄 설정 - 청소년들의 주도성 더 높이기

이들은 팀 내에서 '지기(리더)'로서 활동하며 프로젝트 팀원들을 통솔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나서기도 하는 등 문제해결과 책임을 맡으며 체험교육의 원리에 적합한 과정을 거쳤다. 또한 프로젝트 결과 공유와 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들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학습된 과정들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내일상상 프로젝트가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청소년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통한 미래 가능성 모색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국내에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현황에 대해 진로교육법과 함께 현 정부의 공약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등 강화되고 있는 청소년 진로교육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해외 유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진로체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진단하기 위해 청소년의 관심사 및 진로의식에 대한 기초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재능탐색워크숍 참여자에 대해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어떠한 직업관과 진로의식에 차이를 갖는지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설문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들이 진로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하면서 정작 진로 결정에 있어서 자신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또는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일찾기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FGI에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어떻게 자신의 직업세계로 이어질지 몰라 답답함을 갖고 있었다. 배우는 것이 실제 사회에 어떤 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니 일단은 많은 종류의 직업, 회사, 그 회사는 무엇을 원하는지 등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가 우선되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뒤로 밀리고 자신이 지금 뛰어든 일에서 해야 하는 일이 결정되고, 자신이 꿈꾸는 삶은 취업을 통해 안정성을 얻은 뒤로 유예되는 것이었다.

물론 청소년들은 여전히 자신이 흥미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했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인적 특성 혹은 그가 처한 사회 환경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안전망을 갖추어 청소년들이 자신이 꿈꾸는 삶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 과정동안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또래와의 팀 프로젝트 작업을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은 사람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팀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에서 자신과 동료의 새로운 모습을 관찰하는 경험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에게 익숙지 않던 세상을 만나 그동안 잘 모른 체 갖고 있던 선입견 등을 해소하기도 하며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일을 하는 과정 및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재에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냉정히 바라볼 줄 아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기대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지금 현재 청소년이 위치한 그 좌표를 청소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지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진로교육은 그 선택에 우리 사회경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진로교육은 아직 혼란기에 놓여 있다.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며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진로 인식 증가에 가장 효과적이며 만족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보다 체계적인 구조로 깊이 있게 장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말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러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본 프로젝트는 학교 내외에서 진행이 가능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교과를 통한 학습과 사회활동에서 얻는 학습을 통해 배움과 현실의 연결 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가치인 지역사회인식확대, 공동체의식함양, 협업과 주도성제고, 자아발견 등은 청소년들이 청년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진시키고 가져가야 할 가치로서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지역, 공동체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모색해볼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찾아가야 할 현실이 주어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는 직업에 그리고 그 직업들이 안겨다 주는 경제력과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새롭게 구축될 사회 구조에서 어제와는 다른 삶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 지역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일과 삶을 보다 다채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일을 상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길 바라며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계속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안데르스 에릭슨(2016), 「1만 시간의 재발견」, 비즈니스북스

정윤경(2016),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추진,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 교육개발 43권 2호, 한국교육개발원

▌논문

김나라·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방향과 과제 - 아일랜드·덴마크·스웨덴·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7권 3호, 한국진로교육학회

김낙년(2015),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 페이퍼.

김세직·류근관·손석준(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권 2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고미숙(2006), “체험교육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 7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김나라·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방향과 과제 - 아일랜드·덴마크·스웨덴·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7권 3호, 한국진로교육학회

김달효(2015),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지자·정지웅(2001), “경험학습의 개념 및 이론과 발전방향”, 평생교육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평생교육학회

나병현(2001),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아시아교육연구 2권 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민보경(2010), “중학교 과학 영재아 부모들의 요구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윤희(2016),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진로교육연구 29권 1호, 한국진로교육학회
백은영(2010),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진로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은모·정효정(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26권 4호, 한국진로교육학회
신임선·장윤옥(2012), "커리어포트폴리오형 및 교사주도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신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권 1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여지영·채선미(2016),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염유식·김경미·이승원(2016),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승범·진지형(2016), "자유학기제 적용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행복도, 인성, 진로에 관한 인식 분석", 관광레저연구 28권 2호, 한국관광레저학회
이형실(2014),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권 4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임재수(2000), "초등학교 학부모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언·박보경·현진실(201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 진로교육연구 25권 3호, 한국진로교육학회
장현진(2014),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진로교육학회
정윤경(2016),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추진,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정진철·김나라·최지원(2013), "인본주의 교육철학 관점에서 본 체험중심 진로교육으로서의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와 영국 갭이어에 대한 내러티브 탐

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권 3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조희경(2013), “학부모의 진로관과 진로교육 참여 실태”, Krivet Issue Brief, 39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손유미·송창용(2012), “중학생을 위한 ‘창의적 진로개발 프로그램’효과 분석: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권 1호, 한국진로교육학회
최창곤(2009), “노동시장 Mismatch와 일자리 창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피기용(2005),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2007),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 근거이론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정·이항심·정혜윤·김은덕·유성경(2007), “학업우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0권 3호, 직업능력개발원
한상근(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권 4호, 한국진로교육학회

▌연구보고서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김승보(2014),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의 과제”, The HRD Review 72호 이슈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백유선·이재연(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내성(2007), “회귀분석을 이용한 Imputation 기법활용 연구”, 통계청
장현진·윤형한·김민경·류지영·이지은·유미애(2016), “2016년도 진로교육센터 운영사업(IV):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기초통계표”, 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희경·장석민·이용순(2013), “초 · 중등단계 학부모진로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상근·양수경·권경림·이주원(2010),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최인제··김봉환·황매향·허은영·조지혜(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진로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상근·진미석·이영대·임언·이지연·이양구·정윤경(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상근·김안국·정윤경·장혜정·장주희(2014),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타

교육부,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농림수산식품부(2012),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

[관련기사]

경향신문, “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오력이 필요해”, 경향신문, 2015.09.04.
김위정, “직업 체험보다 직업인의 삶 느끼는 진로교육을”, 한국교육신문, 2016.10.01.
박미경, “청소년·청년 10명 중 7명, 성공위해서는 노력보다 배경이 더 중요해”, 한국NGO신문, 2016.06.15.
박수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선행학습 규제…교과부 ‘박근혜 공약’ 검토

착수", 한겨레, 2012.12.25.
유준호, "이런 황당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매일경제, 2016.07.01.
임지연, "스웨덴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학교-지역-기업의 협업", 주간교육신문, 2017.01.09.
최민지, "자유학기제, 중학교 96%가 1학년 2학기에 시행...효과↓", 머니투데이, 2015.04.20.
JTBC, "공무원·건물주가 '꿈'... 청소년들의 현주소", JTBC, 2016.02.29.

[외국문헌]

Frey, Carl Benedikt and Michael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University.
Kolb, D. A.(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ment," New York: Prentice-Hall.
Hong, J-Y & Doh H-S (2002). Parental marital conflict,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5), 125-136.
Hartup, W. W. (1993).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희망리포트 [2017-01]

청소년들의 일과 삶

-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행인 박재승
편 집 희망제작소 시민사업팀
디자인 안영삼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1026
www.makehope.org

'2016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03008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